DEC 2 2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00 1981년12월1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December 19,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헌

권력남용, 배금·향락주의를 개탄

성탄정신은 고된 형제에 동참

김추기경, 크리스마스 메시지서 역설

(서울) 한국 캐톨릭 최고지도자 김수환 추기경은 17일 캐톨릭 신도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성탄메시지에서 권력의 남용과 현대사회에 팽배한 배금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의 만연을 개탄하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억눌림과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현대 문명이 세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가고 있으며, 무신론과 그로인한 인간존엄의부정은 세계 곳곳에서 인권침해, 인공유산, 폭력및 인간생명의 모멸의 원인이되었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2천년전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탄생하신 그리스도 에게는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과 세계가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마 주교회의서 김수환 추기경

토론토에 3천 데모군중들

폴랜드 사태규탄 자유노조지지

16일 약3천명의 폴리쉬들이 토론토에 모여 폴랜드군부통치반대와 솔리대리티노조를 지지하는 데모를 벌였다.

시내 나탄·필립스 광장에 모인 데모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파견된 캐나다관리들로부터 폴랜드사태진전의 소식을 들으며 폴랜드의 계엄령 철폐를 외쳤다.

폴리쉬 데모군중 곳곳에는 체코와 항가리기도 나부껴 동유럽인 합동시위의 인상을 주었다.

연방정부를 대표한 폴·코스그로브주택장관은 폴랜드국가에 이어 오 캐나다를 선창하고 군중들에게 "정부는 맥기간외무장관을 통하여 폴랜드대사에게 현 폴랜드 계엄령사태를 비난하고 서방세계와의 즉각적인 통신재개를 요구했다." 고 전했다.

신민당 에드워드·브로벤트당수도 "지난 여름 폴랜드를 방문했을때 솔리대리티의 호소문을 보았다" 면서 모든 폴랜드군부는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주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폴리쉬출신 국회의원 심코의원은 "렉·발렌싸가 이미 공산당정부에 의해 쇄뇌당했다는 말이 있으나, 폴랜드인의 정신이 소멸하지 않는한 렉·발렌싸는 꿋꿋이 살아 있을것이다" 고 말했다.

데니스·맥더모트 캐나다 전국노조위원장은 "이번 토요일에 오타와에서 있을 캐나다 전국적 데모에 참가할 것"을 군중에게 호소하며 폴랜드정부의 자유노조간섭을 규탄했다.

한일 프로야구시리즈

장훈, 중재자로 곧 방한

(서울17일=연합) 한국태생으로 한때 일본프로야구의 스타였던 장훈(41)씨가 한·일 프로야구팀으로 구성된 "코리안 저패니즈 시리즈"의 창설을 의논하기위해 내년초 한국을 방문한다고 17일 전해졌다.

장씨는 최근 조직된 한국프로야구단장 서종철 프로야구 코미셔너 등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코리안-저패니즈"계획안은 일본 12개 프로야구팀중 우승팀이 한국의 6프로팀과 경기를 갖는 것이라고 소식통이 말했다.

그는 장래 언젠가는 중공까지 포함한 "극동시리즈"를 구상중이라며, 야구를 통하여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16일 동경에서 말했다.

장씨는 올해 시즌을 끝으로 프로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방송야구 해설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선수생활중 3000개의 안타를 쳐 기록을 갱신했다.

폴랜드군 전국장악

체포4만5천·사망 9명

자유노조측 재기준비중

17일 새벽 80년여름 폴랜드의 솔리대리티가 발족된 볼틱해안도시 그댄스크의 레닌조선소가 노조원들의 저항에도 불구, 폴랜드군부에 의해 에도 불구, 폴랜드 군부에 의해 완전 점령됐다.

파리의 한 노조지도자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13일 계엄령 선포 이후 현재까지 군부에 체포된 폴랜드인은 58명의 노조지도자를 포함, 4만5천명에 이르며, 9명이 군과의 충돌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폴랜드 군부는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 전국을 장악했고, 노조지지자들이 산발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바지 정부와 노조간의 충돌을 무마하는 중간역할을 해온 폴랜드 가톨릭교회의 조젭·글렘프 추기경은 성명을 발표, 군부의 점령을 항의하고 "폴랜드는 이제 군에 의해 완전히 짓밟혔고, 노동자의 권익이 땅에 떨어진 것은 씁쓸하고 가증스런 일" 이라고 말했다.

바르샤바의 한 시민은시내의 군순찰이 강화되었다며, 외부군이 아니라 폴랜드군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했음은 통탄할일"이라고 분개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오·콜롬보 외상은 바르샤바의이탈리아대사관에서 나온 보도를 인용, 솔리대리티 지도자 렉·발렌싸가 현재 바르샤바 외곽에서 감금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15일 폴랜드 관리들은발렌싸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끔 통곡했다고 전했으나 한 노조소식통은 그의 정신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다.

발렌싸는 13일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도,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폴랜드 군부는 그의 행방에 대해 공식확인은 아직 안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노조지도자들은 체포를 피해지하로 잠적, 노조의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막·맥기건 캐나다 외무상은 바르샤바 주재 대사관으로부터의 소식에 따르면 계엄령 이후 산발적인 폭력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나단·필립스 광장에 모여 연사들의 폴랜드 계엄령규탄 소리를 듣는 3천여 폴리쉬캐나디안들.

社說

광고와 언론

— 그 함수(函数)관계

개인이고 단체이고 간에 피해야 할 금기(禁忌) 가 있고, 지켜야 마땅한 윤리가 있다.

최근 본지가 시리즈로 내보낸 여행사 관계기사를 둘러싼 토론토 한인계 여행사들과 교포주간지들의 동태에 개운치 않은 구석이 엿보여, 차제에 광고주의 자세와 언론의 나아갈 바길(正道)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상식에 속하는 얘기지만 신문은 보도기사 · 계몽기사, "제3기사"라 할 수 있는 광고등으로 형성되어있다.

광고기사는 업자에게는 선전, 판매고 촉진제 구실을 해주고, 독자에게는 생활정보 흡수수단이 되어주며, 신문사에게는 보도기사의 일부이며, 또한 신문사 경영비 충당의 비중 큰 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말을 바꾸면, 신문등 언론이 수행하는 기능중의 하나가 광고기능이어서 사업체, 정부, 사설업체나 단체 · 개인의 광고를 널리 대중에게 알려, 광고주의 선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한편, 대중에게 광고에 담긴 메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언론기관은 이같은 매체(媒体)역할을 해주는 댓가로 광고료를 받아 신문제작에 사용한다. 이 광고수입은 신문사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광고수입이 부족할 때 신문사 운영은 큰 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 점에 언론기관의 고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의(善意) 광고주중 일부 악덕광고주는 신문사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기사에까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상례이고, 지조 없는 언론은 광고수입의 단절을 우려코 광고주의 압력에 좌우되는 사례(事例)가 종종 있다.

즉 자기 업체나 단체등의 비행이나 부당이득등치(恥部)가 기사화되어 자기축에 불리해지자 광고게재중단, 폭언등의 보복처사를 감행하는 실력(?) 행사나, 또는 더큰 광고를미끼로 내세워 기사게재 중지를 종용하는 따위 얄팍한 협상등은 광고주의 횡포라 지적되겠다.

그같은 처사는 공인으로서의 양식(良識)을 의심받을 옹졸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지적받아 마땅할처사는 광고지속이나 더 큰 광고획득등 저(低)차원의 상술로 그같은 악덕광고주에 아부하여, 한술더 뜨는 식으로 정의의 필봉을 휘두르는 동업지를 헐뜯는 따위 사이비 언론이 있다면 일반 독자들은 그것을 어찌 평가해야 옳을지, 한심한 소행이 아닐수 없다.

◇ ◇ ◇

최근 본지는 지난10월부터 7회에걸쳐 특집기사 「여행사와 항공요금-그실태」를 게재하여 대한항공과 토론토의 교포여행사들의 운영실태등을 보도했다.

이에대해 여행사들측 은 「해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주간지(교포신문)는 그[illegible]부화뇌동(附和雷動) 하여 본지를 비난했다.

우리는 구태여 이에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아니한다. 다만 교포사회에서광고주의 횡포에 굴하지않는 언론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부하며,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한번 천명함으로써 정의의방파제, 선량한 다수의 이웃으로서의 언론의 존재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힘의 남용이나 부(富)의 횡포, 비굴한 기만처사등각종"정신의 공해", " 공익의 적"에 대하여"칼보다 강한 언론"의 필봉은 서릿발 같이 냉엄, 예리해야함은 당연중의 당연지사이다.

더우기 일부 소수의 「암적 점예(?)로 말미암은약세에 놓인 다수의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는 냉철한이성과 정의의 필봉은 유감없이 휘둘러져 시정을 촉구해야 그 사회를 맑게 하고 밝은미래를 열어주는선도자적 소임을 다하는 언론이 되는것이다. 일러서 "방향제시자"며"사회의 목탁"의 이름에 명예로이 부합된다 하겠다.

문제화된 여행사 기사뿐 아니라, 어떤 업체라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막심한 음성적 환부가 발생하면예리한"메스"로 과감히 해부, 지적, 비판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언론의 근본자세라는 것을 밝히며, 이는 계속 앞으로의 본지의 지론임을거듭 다짐하는 바이다.

언론은 항상 대중의 편이며, 억울한 약자의 이웃인 것이다.

알렌보좌관 수사확대

양도한 회사보고서 불실로

법무성은 일시휴직중인 리차드 알렌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지난 2월 제출한 재정보고에서 포토맥 인터내셔널회사의 고객명단을 기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정부고위관리가 8일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동 관리는 법무성 담당검사들이 지난 수 일동안 고객명단기입문제에 관해 백악관 관리들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법무성은 알렌보좌관의 1천달러 수회사건을 전담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일본 잡지사로부터 받은 2개의 시계와 재정보고서의 날짜기입문제만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렌보좌관은 포토맥 인터내셔날회사를 처분한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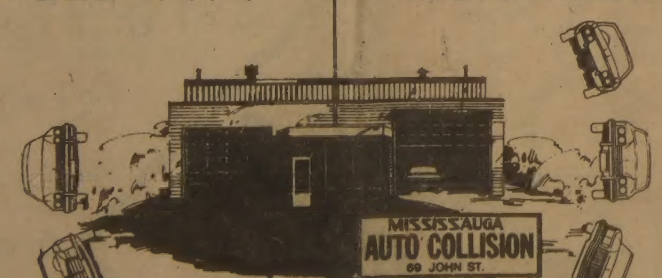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 - 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 - 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5

불황여파로 우울한 X－마스

소매상, 백화점 세일에불구 판매부진

소비자들은 겨울코트와 스노우타이어가 선을 보이기 훨씬 전 크리스마스선물을 사기 시작한다. 12월은 물가가 가장 높은 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12월은 물가가 가장 비싼 달인가?

소매업계는 금년들어 크리스마스용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예년 어느해보다 큰 노력을 쏟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불황으로 가계부가 빠듯해진 소비자들이 가격이 좋지않으면 사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최근 신문들의 광고를 잠깐만 스쳐봐도 남성용샤쓰 1/3, 디자이너옷 40%, 시계및 금은보석류 50%할인등 가구에서 장난감까지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할인판매를 실시해도 고객의 절대수는예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소매업자들은 울상을 짓는다. 예년같으면 11월 중순부터 대백화점을 비롯 각종 소매업소에는 크리스마스·쇼핑을 하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12월5일 주말이 돼서야 쇼핑객들이 꾀기 시작했다. 캐나다소매위원회연구소장 멜·프루이트만씨는 올해 소매업자들이 최고로 바랄 수 있는 것은"평범한"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즉 예년처럼 크리스마스 철에 한 몫 단단히 잡을수는 없게 됐다는 말이다.

토론토대학교 경영학부 더글라스·타이거트 학장은 좀더 비관적이다.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판매부진으로 소매산업계 는 20년이래 최고의 파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소매업자는 작년보다 매상이 1/3이나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은 예년에 비해 값싼 선물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몬트리얼의 소매분석가 마틴·카우프만씨는 재정적으로 튼튼치 못한 소매업자는 크리스마스시즌을 위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사놓았기때문에 헐값으로 물건을 팔아서라도 현금을만들어 외상값을 갚아야 하고, 또 재정이 튼튼한 소매업자도 생산업자가 헐값으로 생산품을 내놓을때사놓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므로 할인판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슨백화점의 데이 빗슨씨는 소매상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재고가 쌓이면 재고에 대한 이자를 물어 막심한 손해를 보기때문에 덤핑판매를 해서라도 물건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소매업계의 판매 실적은 지난 여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캐나다 통계국의 통계를 보면 금년 처음 6개월동안의 판매율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15.3% 증가했으나 그후 내리막길로 줄달음쳐 올 10월의 판매성장율은 9.2%에 머물렀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할때 부진한 성장을 보인것으로 분석된다.

▲『스튜디오 54』에 모습을보인 화라·화셋.
미국의 인기여우 화라·화셋양이 5일 뉴욕에 있는『스튜디오 54』디스코클럽에서 보이후렌드 라이언 오닐과 함께 댄스를 하고있다.

통일교, 면세혜택 상실

과거면세액 $1만3천 납부명령

토론토 통일교는 교회가 누리는 세금면제혜택을 잃고 그동안의 면세액 $13,387.78를 시에 납부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15일 시의원 딕·길버트가 발표했다.

길버트 의원은 지방세무사정감독관은 문선명 교주에 의해 창설된 통일교(일명 무니스)에 79년6월까지 소급하여 일반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길버트는 이같은 통일교의 재산세 납부명령 이유로 통일교는 종교단체 (교회)가 아니고 우익정치 단체이며, 그들의 수익은 정치목적에 쓰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길버트는 통일교가 면세혜택을 누리는 재산의 내역을 관계세무당국자로부터 입수하고, 영국에서 통일교측이 명예회손으로 법정고소했으나 기각당한 판결문 사본을 세무당국에 보내면서 통일교를 "정치단체"로 규정했다.

이같은 문의와 판결문을 검토한 세무당국은 통일교재산(부동산및 건물)을 조사한끝에 비록 통일교 당국이 그 건물을 통일교 지도자양성훈련소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교회에 부여하는 면세혜택 자격을갖추지 못했다고 결정내렸다.

무역관 기념식·연말파티

150여 무역인, 교민 성황리에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은(관장 : 조성호) 15일 세계무역관(60 Harbour St.)에서 캐나다수입업자와 교포무역인을 초청 연말파티를 겸한 수입업자 기념패증정식을 가졌다.

200여 무역인, 교민등이 성황을 이룬 파티에서 조성호관장은 캐나다수입업 협회의 키드·딕슨회장, 세계무역관 게리·리드 관장에게 한국의 수출진흥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국은 81년도 대캐나다 수출목표액 4억8천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 작년보다 약17% 의 증가를 보였다고 조관장은 말했다.

특히 토론토무역관은 금년도 창설10주년을 맞이했고, 한국무역상사의 토론토 지사만도 10여개에 달해 캐나다는 한국의 주요수출 대상국이 됐다.

한국은 81년도 수출목표인 20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 수출증대의 전환점이 된해로 꼽을 수 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⑧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 사람들이 카네투아호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안전하게 도피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호수 연변으로 되돌아와서 강어귀쪽으로 10여마일을 답사해 갔다. 도중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세개의 큰 캠프자리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들 세캠프 이외에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있었던 평상시의 무덤이 발견되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이 어떻게장사를 지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무덤들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쓰던 겨울용 썰매를 위에 얹어 봉을 만든후 큰 장대를 세워 표시해 놓았다. 무덤입구는 바윗돌로 깨끗하게 막아놓고, 버드나무가지로 지붕을 해서 무덤 전체가 하나로 망가진데가 없었다.

무덤옆으로 사슴잡는 창들, 눈 써는 칼, 화살톱, 화살촉 그리고 공들여 만든 다섯개의 돌파이프등따위로 그 사람이 저세상에 가서 보여줄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의 무덤이었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무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내가 돌아올 때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히스테리가 될 정도로 급하게 서둘러 왔다. 나는 캠프에서 오호토가 반겨주는 곳까지 왔을때, 거의 뛰다시피 했고,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감정이 넘쳐 그를 반기게 되었다.

오호토는 사슴을 통 볼 수 없었지만 북쪽으로 자기가 본 것중에서 사슴이 지나갔던 제일 큰 사슴길이 나있더라고 말해 주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앙쿠니로 가면 사슴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고, 또 사슴고기를 저장하기만 하면 서북쪽으로 아직 가보지 못한 곳까지 탐색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윈디베이에서갖고 온 식량은 거의 줄어들어서 사슴이 전혀 없는 바렌쪽으로 떠나가게 되면사슴을 잡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며칠동안이 몇주가 되도록 사슴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셋은 새까만 모기와 블랙·플라이매들이 우리의 모기장 밖으로 살아있는 털실처럼 매달려 있어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모기장안에 앉아서 피에 굶주린 곤충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정 없는 뜨거운 햇볕과 바람 한점 없는 날씨 때문에 담아논 물통의 물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더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삼일에 하루는 바람도불고, 마치 어떤 은혜로운마술의 장난인 것처럼 모기와 파리도 한꺼번에 없어져 버려 지옥에서 잠시 풀려 나오는 것만 같았다.

어느날 나는 앙쿠니호수 연변을 따라 거의 20 마일을 헤매며 답사해 보았으나 단 한마리의 새나 혹은 짐승도 구경할 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잡초사이에서 메추라기만큼 반쯤 자란 타르미건 뇌조 한마리를 보았고, 후에 산마루를 낮게 날며 찌르는 듯 하게 울면서 재빨리 사라진 큰 매 한마리를 보았을 따름이다. 거기에는 사슴이나 북극토끼, 다람쥐, 여우, 혹은 다른 새들도 전혀 살지 않았다.

앙쿠니 평원은 비어있었고, 황폐된채로 나에게 언기 어려운 선물을 안겨준 곳인데, 이것은 내가 오호토와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들이 할일 없이 날짜만 끝자 오호토는 매우 수다스러워졌고, 나 또한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보통이 넘는재치를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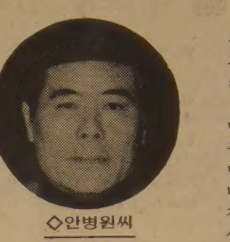
어느날, 강한 남풍이 불던 저녁나절 오호토와 나는 감옥같은 텐트에서 나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혹시 사슴이 보이는가 하고 먼 들판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툭투(사슴)의 기척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은 매우 상쾌한 날씨였으므로 우리는 산꼭대기의 바위틈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고 해가 서산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계속)

제3회 토론토한인교향악단

— 가족음악회를 보고 —

안 병 원 (전 숙대교수)



◇안병원씨

음악평

좋은 음악을 좋은 연주로 감상하는 것같이 행복한 순간은 없다.

고전음악은 수백년전부터 많은 작곡자들의작품이 연주자와 청중에 의해 추려지고 다듬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작품일지라도 연주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연주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능력(실력)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무리없이 착실하게 연주함으로써 청중에게 감명도 주고, 평가도 받게된다.

일부 기초실력정도의 어린 학생도 대원으로 편 성된 교향악단을 짧은 기일내에 이같이 훌륭히 성장시킨 지휘자 김승순씨의노고에 깊이 찬사를 보낸다.

전체적으로 현악부분에서 저음이 약하고,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음의정확성이 부족하다. 관악 부분은 전반적으로 흐리고거칠었다.

누구나 다 즐겨 듣는 유명한 슈벨트의 미완성교향곡은 그런대로 무난했다. 다만 단원들이 자신 에게 너무 충실한 나머지 지휘자의 싸인을 놓쳐 테마에서 테마로 연결될 때와 피아닛시모(아주 여리게) 등이 정확치 못한 것이 흠이었다.

크리스마스 · Festival 의 관현악곡은 멋진 연주로 오래만에 즐거운 성탄의 기분을 맛보게 했다.

피아노 4중주(훌룻- 김주원, 오보- 김미영, 크라리넷- 윤기범, 피아노-김MARY)는 그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연주였다.

모찰트의 현악4중주(1바이올린-윤영철, 2바이올린-김양희, 3바이올린-김명덕, 첼로-독고정)는 전체적으로 곱고 조용한 연주였으나 음 하나하나를 성실하고 정확하게연주함이 필요했다.

특히 부부합창단의 합창이 이채로왔다. 솔로를 맡은 윤혜숙, 조태선씨의 노래가 들을만 했고, 남성파트가 고음에서 무리하게소리를 내는 것이 옥의 티였으나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다만 바람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길수 있는 노래곡을 선택하여불려주었으면 명색대로 가정을 위한 부부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흔히 듣기 힘든 기타협주곡(솔로-GREGORY S. ENGLISH)의 Andantino는 무난했고, Allegro-Rondo는 지나치게 자기도취한 결과 경쾌한 리듬의 변화있는 악곡으로 연주하지 못하고, 템포가 느려서 반주와 맞지 않아 불안하 고 지루했다.

김선영양의 바이올린 독주(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는 좋은 음색의 박력있는 연주였으나 악절끝에 가서 매번 약간의 음정이 높아졌다. 이점을 시정하면 더욱 발전하겠다.

훌룻독주의 고세완 군은 멘델손곡을 잘 들려주었다. 흔치 않은 남자 훌룻주자로서 앞으로의 기대가 총망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히 익혀지겠으나 전반적으로 독주나 중주자들이 무대에 익숙치 못한 것이 눈에 뜨이고, 특히 타악기 주자들의 연주중의 몸가짐을 많이 시정해야겠다.

음악연주가는 평생을 공부하고 연습해야 된다. 고되고 어려운 길이다.

밍크 앵콜쇼-!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중 계속 우량품 밍크와
모피를 구비하고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OFF

☆ 영업시간 : 오전10시－밤9 시
사업하시는 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밤9 시까지 연장합니다. (단 일요일은 낮12시부터 밤 6시 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실버웃 2% 백밀크 10¢ 인하
27일부터 6주간 스페샬

실협회장단은 지난 12월 7일(월요일)오후3시,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실버웃 밀크의 로즌 데어리(Rosen Dairy)디비존 제너럴 세일스 매네저 고든 맥그레일(Gordon McGrail) 씨와의 회담에서 전 협회원들에게 2% Bag밀크 가격을 27일부터 6주간 Bag당 10¢씩 인하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요즈음 큰 수퍼마켓 체인들의 가격전쟁 품목들중에 2% Bag밀크가 주종품을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해 코너 스토어들이 입고있는 막대한 피해를 어느정도카버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장단의 끈질긴 교섭끝에얻어 낸 것이다.

한편 실협은 실테스트(Sealtest), 비트리스(Beatrice)등 다른 밀크 회사들과도 교섭을 진행중인데 금주중으로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즌 데어리에서는 매달 우유제품들인 싸워크림 카테이지 크림 오렌지 쥬스등 품목별로 스페샬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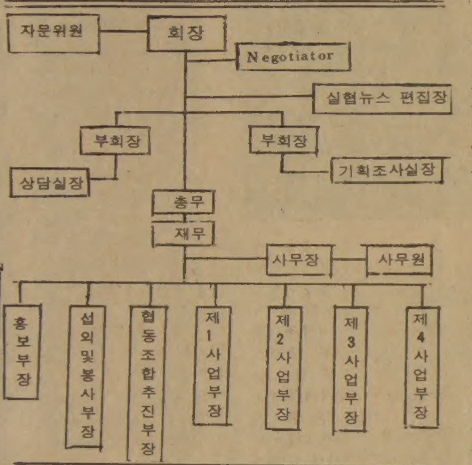
소론"실업인 협동조합"에 유감
차회장, 협회와 무관 강조

협회 차선경회장은 지난 12월8일부터 한국일보에 연재되고있는 김학량씨의 소론"실업인 협동조합" 에대한 내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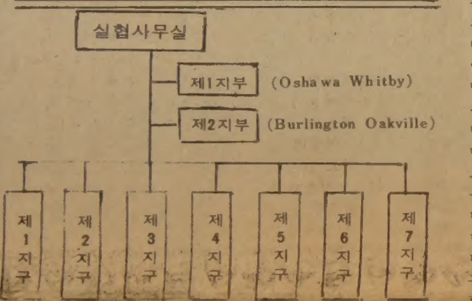
이는 본 협회가 추진해 오고있는 협동조합 설립의 지에 배치되는 내용들이있어 많은 회원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회장은"그분이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지상에연재하여 관심을 표시하는일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개인적인 의견일뿐 일반적인 협동조합론이 못된다. 사전에 협회의 임원들과어떤 상의도없이 그같은 주장을 내세우는것은 협회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사를 오도하는 것이며, 더구나아직 그 원칙, 방향, 조직, 자본구성, 운영관리에대한 뚜렷한 계획을 갖지못하고있는 현싯점에 타기관의 부이사장으로서 깊이 언급함은 지나친 월권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차회장은 현재연재되고있는 소론은 김씨개인의 의견이며, 하등 본협회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혔다.

이사회에 상정될 신 집행부 조직편성표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지역별 구성표



집행부 동향

집행부의 부서담당자 위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들어가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분주히 활동하고있는 집행부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알림으로써 회원들의 성원을 요청한다.

◇로즌 데어리의 고든·맥그레일과 3차례의 회담. (2%의 Bag밀크의 10¢인하와 리베이트의 현실화문제)

◇욕(York)아이스크림 의 프랭크·패로우와 아이스크림 품목의 프로모션에 관해 회담.

◇멀티-메디아(Multi-media)의 죠·드윅과 포켓북 30% 디스카운트 추진협의.

◇크리스티나 샴푸(Christina Shampoo)의 Y·Song 사장과 한인 생산업자 지원문제 협의.

◇캐나다 외환은행의 최승락행장과 이수신 전무와의 자금지원 방안면담.

이사회 동향

임기총회에서 선출된 집행부 회장단 서동준, 백경락, 이춘수, 장추국씨등 이사선임위원들은 14일 가진 2차 모임에서 서동준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임위원들은 또 다음과 같은 이사 선임원칙을 정했다.

①구이사 배려.
②구회장단및 선거 낙선팀에 대한 배려.
③지역별 안배.
④단체별 안배.

내주중에는 명단 발표가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예작품공고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그렇지만 보십시오 죄를범한피고는 재판의 날자를 마음대로 연기하고, 배심원을선택할 권리가있고,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입장이면 국가에서 변호사까지 알선해주는 형편이니, 죄지은 사람에게는 모든권리가 보장돼 있는것 같은 느낌이고, 피해를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손해배상도 없으니 내 입장이라면 억울해서 반항하지 않을사람이 어디있겠소?」「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소. 그렇지만 이캐나다는 법을존중하는 자유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재판을 위해선 죄를범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기회와 권리가 있소.」「내가본 견지에는 죄인 에겐 너무많은 권리와 기회가있고, 피해자는 국가에서 너무 무관심한것 같으니재판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걸 알면 강도를 맞고도 증인이 되겠다고 선뜻 나설사람이 없을것이니 결국은 국가에서 강도를 권장한다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소. 난 너무 억울해서 법정에 서길 결사반대했던 것이오」「아뭏든 이렇게 나왔으니 오늘 재판을 진행키위해증언을 해주겠소? 아니면 되돌아 가겠소?」어떤 압력을 가한 물음이었다. 「오늘은 증언을 할수있지만다음엔 다시는 올수없다고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하겠소. 나는 나대로의 이유가있기 때문이오」「고맙소」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피고의 변호사로부터 물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강도를 만난 모든내용이 진실이라고생각합니까?」「그렇습니다.」「내가 알기에는 Mrs. 김이 간호원이라 들었는데…」「현재 근무하고있는 정식 간호원이오. 그렇지만 내직업과 강도만난것과 무슨관계가 있어서 묻습니까?」아니꼬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디서 학교를나왔는지?」「한국에서 나왔오.」「그날 범인이 밖으로 반사되는 색안경을 썼다고했죠?」「그렇소」「그날 범인의눈을 볼수 있었는가?」「볼수 없었다」「너가 말한대로 범인의눈을 볼수 없었다면 어떻게 범인이라고 확인할수 있는가?」「색 안경을써서 눈을볼수 없었기 때문에 눈 부분만을 제외한 다른얼굴 부분은 자세히 볼수가 있었다.」「범인이 사용했다는 칼에대해서 좀 애기해줄수 있을까?」「부엌에서 사용하는 까만 값싼 식칼이었고, 가늘며길이는 약 30센치메타 정도였다」「범인이 칼을 목앞에 대며 위협했다고 했는데…」「사실이다. 그 순간 나는뒤로 넘어졌다」「범인의 키가 1메타80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메타 시스템으로 계산했기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피트나 인치의 계산보다 더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아까 뒤 방청석에서 동반한 경찰과 애기를 하는걸 보았는데 무슨애기를 했었는지?」「나를 놀라게한범인이 결혼을 했는가고 물었다. 만약 부인이있고 가정이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만삭이된 여자를 칼로위협하며 강도질을 할수 있는가를 알고싶었다. 부인이있다면 참 불쌍한 여자라고 애기했다.」「그자가 놓고간 포테이토·칩의 핑거 프린트가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애길 들었지만 그 애긴 하지않았다. 모든걸자세히 기억할수는 없지만」변호사는 몇분후에 상점에 들어오고, 범인과 상점에서 무슨애기들을 했는가 등등 쓸데없는 질문들을 시간도 충분히 주지않은채 계속 1시간에 걸쳐서 질문하였다. 자꾸 물어서 결국은 내가 대답을 못하도록 궁지에몰아 넣으려는 태도였다. 마땅히 벌받아야되는 죄인을 위해·열심히 변호하는 그 변호사마저도 아주미웠다. 미워서 어떤질문엔「네가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면서왜 나에게 묻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후 판결은 다음주에 있다고 했다. 최후판결이야 어쨌든 나에겐 관계없는 일이었고 나의지긋지긋한 암무가 끝난 것만으로 시원했다. 난 집으로 갈준비를 하고있는데, 경찰이 다가오며 나에대한 재판은 오후에 있으니(약1시간동안)법정과 연결돼있는 임시감옥에 들어가있어야 된다며 여자감독(?)과 같이 가라고 했다.

법정출두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난 정식구속된 몸이었고, 그 정식구속의해결을위해 난 법의절차를밟아야만이 자유의몸이 될수 있게 되었던것이 다. 이런 기막힌 꼴이 하늘아래 또 있을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나오지 않았다. 난 아예 감정을잃은 하나의멍청한 로봇트가 돼 있었다. 시키는대로 하고 이 지긋지긋한 장소로부터 빨리도 피하고싶은 마음 뿐이었다.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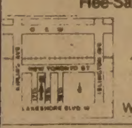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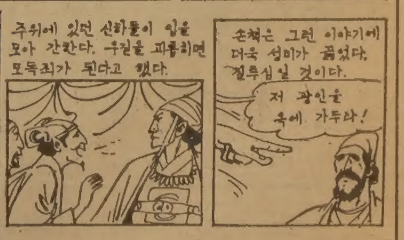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새벽1시
장 소 : SKYLINE TORONTO HOTEL (BALL ROOM A "2층")
665 DIXON RD(AT HWY 27)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플로리다 왕복항공권 TV.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물로나아오라!

협신기도원 개원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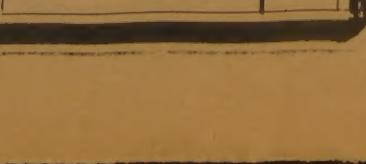
연말수양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것을먹을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이사야55 : 1~3)

강사 : 박경남 목사
일자 : 1981년12월28일4 시30일3시
장소 : 협신기도원 연락처 : 245-1687

준비물 : 성경, 찬송, 슬리핑 백, 담요, 세면도구등 식사제공(금식은 자유)

주최 : 협신기도원
후원 : 협신선교협회·협신기도동지회



國家전반 淸廉度측정

全대통령 司正활동 5대指針 시달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15일 正義사회구현을 위한 국가司正활동의 중점領域으로 ①국가전반에 걸친 淸廉度측정 ②公職풍토의 우선적인 淨化 ③각종 사회적非理·弊習의 拔本塞源 ④비합리적인 제도와 환경의 꾸준한 개선 ⑤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과 부정·非理의 事前예방활동등 5가지 사항을 司正협의회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司正협의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에 즈음해 이같이 지시하고 『그동안의 司正업무 추진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국가司正활동을 국민생활底邊에까지 확산해 나감으로써 온국민이 그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금년도 국가 司正활동에 관한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사회주요분야의 부조리가 개선되는등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했다.

① 淸廉度 정확히 基準진단
② 公職풍토의 우선적 淨化
③ 社會非理·弊習 발본색원
④ 非合理的 제도·환경개선
⑤ 국민들의 意識개혁 운동

警察·稅務·保健·都市문제등 국민生活 직결된 行政쇄신

司正협의회 5年계획 民願部署등엔 年2回 조사

정부는 15일상오 서울三淸洞 南北대화사무국회의실에서 司正협의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國家淸廉度診斷체제의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司正업무5개년계획과 82년도 司正활동추진방안을 확정, 각부처에 시달했다. 許三守청와대 司正수석비서관 주재로열린 이날 회의는 82년을 「국가司正활동 底邊확산의해」로 설정, 경찰·稅務·도시행정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근원적으로 쇄신하고 폭력·사기등 건전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社會惡을 과감하게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2면

이날 회의는 또 내년부터 국가淸廉度진단을 실시, 국가주요시책사업, 民願부서와 人事·물자취급분야등을 대상으로 年2회 部署別, 계층별로 청렴도를 측정해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年2회의 사회淨化동향 조사와 司正기관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淨化키로했다.

司正협의회는 그동안의 司正활동이 주로 고위공직자등 핵심계층을 대상으로해 사회저변층까지는 확산되지 못했기때문에 경찰, 稅務, 보건, 위생, 건축, 消防등 일부 행정분야에 아직도 부조리가 남아있는등 국민들이 司正활동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인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확정된 司正5개년계획과 82년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司正업무 5개년계획

◇基本方向▲85년까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청렴·정직하게 봉사하는 정직한 공무원, 법과질서를 준수하는 성실한 국민상을 정착시켜 「일등국민 선진국가」에로 도약하는 사회건설의 기틀을 마련▲81~82년을 기반조성단계로 83~84년을 심화·發展단계로 ▲85년을 정착·계승단계로 설정.

◇국가淸廉度 진단체제구축▲체계적인 암행점검 여론조사등의 방법에의해 공직자의 청렴도와 일반사회의淨化度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측정체제의 測定모형을 현재 개발중▲85년까지 各部處別 自律的인측정및 시정체제확립

◇公職風土淨化▲82년 고위및 司正기관에대한 자율정화정착과함께 주변인물에 대한 整理·단속 추진▲84년까지 대다수 下位職공직자에대한 정화완료▲85년까지 청렴·성실한 새공무원상정착▲政治風土의 刷新을통한 청신한 정치인상과 議政風土정립.

◇社會的非理、弊習제거▲83년부터 은밀화된 부조리와 전문직업인등 合法을 위장한 非理의 퇴치추진.

◇제도·환경의 개선▲83년까지 부조리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위한 각종법령、제도개선작업을 완료▲84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운용, 문제점 보완.

◇사회정화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사회정화운동추진조직의 보강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을 推進、85년까지 國民의 의식구조전환을 이룩.

82년추진계획

▲국가주요사업、民願부서、人事、물자취급분야를 대상으로 年2회 청렴도측정▲부처별로 고위직의 위법、부당지시근절 대책과 주변인물의 정리·단속방안을 세워 1월1일부터 실시▲사기、퇴폐、상습도박、부동산투기、서민착취、갈취등의 縱斷▲82년 하반기부터 公正去來질서확립운동 전개

波軍、百29개 主要工場 掌握

軍事評議會 소집 政府·軍任務구분

勞組선 罷業전국擴散 맞서

【빈15日UPI AP=聯合】 계엄령선포로 전권을 장악한 폴란드구국군사평의회는 14일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의 주재하에 회의를 소집, 현사태를 논의하고 군과 정부의 적절한 임무를 구분지었다고 빈에서 청취한 바르샤바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공산당을 제외한 기타 군소정당들이 이날 개별회의를 열고 야루젤스키 소장의 계엄령선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 당국은 13일 탄광과 발전소등을 계엄군수중에 넣은데 이어 14일 또다시 정유공장, 폭약및 유동물질 생산공장, 그리고 군복및 군사장비제조공장등 1백29개 주요 공장들을 「군사화」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군사화」조치가 취해진 공장의 노동자들은 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하 징역2년에서부터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수 있다.

【빈15日UPI=聯合】 당국의 계엄령선포에 항의하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르샤바의 주요공장들과 실레지아지방의 탄광지대、서부 포즈난주와 서남부 브로츨로프주의대다수공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유노조및 목격자들이 15일 밝혔다.

런던에서 14일 청취된 바르샤바방송도 『바르샤바의 수개공장을 포함한 몇몇공장들에서 일단의 직업적선동가들이 이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시인했다.

이방송은 파업중인 수개공장들이 군·경에의해 포위돼있다고 밝혔는데 목격자들은 바르샤바 제철공장、FSO자동차공장、스비에르제프스키정밀기계공장、군장비제조공장、우르수스 트랙터공장등 바르샤바일원에있는 공장들이 파업중에있거나 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된상태에있다고 말하고 남부크라코프에있는 레닌제철공장에서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후타·바르샤바공장은 이날 노동자들의 파업을 촉구하는 『본공장은 자유노조를 수호하려는 레흐·바웬사를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닌노동자들』이라고말했다.

자유노조공보실은 16개월전 자유노조를 탄생시켰던그다니스크 조선소도 노동자들의 수중에 있다고 밝히고 『약 1천3백명의 시위자들이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과학원 건물안에서 연좌데모를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샤바에 들어오는 보도들은 바르샤바에서의 파업과 함께 실레지아、포즈난、브로츠로프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에서도 당국의 계엄령선포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령선포와 함께 그다니스크에서 바르샤바로간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정부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관영언론기관들은 보도했는데 자유노조소식통들은 바웬사의 공식성명이 공장이나 목격자들의 앞에서 녹음되지않는한 그가 당국의 요구대로 성명을발표하지않기를 바란다고말했다.

★관련기사3면

軍政、바웬사逮捕

스웨덴消息通 戒嚴軍과 協商거부로

【스톡홀름15日AP=聯合】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새계엄군사정부와의 협상을 거부, 체포되었다고 스웨덴주재자유노조사무소대변인이 15일 말했다.

스테판·트르친스키대변인은 폴란드에서 페리편으로 14일 스웨덴에 도착한 폴란드인들로부터 바웬사의 체포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스웨덴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5일 밝혔다.

바웬사는 계엄당국이 구속된 자유노조지도자와 협의토록 해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당했기때문에 당국과의 협상을 거부했다고 트르친스키는 전했다.

폴란드당국은 바웬사가 각료2명과 협상중이며 예우를 잘받고있다고 주장한바있다.

美、對波원조 中斷

【빈·워싱턴15日UPI=聯合】 미국은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에대한 대응책으로 모든對폴란드경제원조를 중지했다.

헤이그미국무장관은 15일 폴란드가 계엄령상태로 있는한 앞으로있을 식량원조를 포함한 폴란드에 지원을중단했다고밝혔다.

레이건행정부는 올해폴란드에 1억달러에 이르는긴급식량차관을제공하기로 앞서합의한바있다.

蘇、"介入안해"

【모스크바15日UPI AP=聯合】 소련은 폴란드국내사태에 개입하지 않을것이라고 소련노보스티통신의 정치분석가인 블라디미르·나카라야코프가 15일 평가했다.

地下鐵3·4호裝備借款先확정

地上설비 美 웨스팅하우스社 電動車는 英GEC·TPL社

서울시는 15일 4억5천만달러(3천1백5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3·4호선의 전동차및 신호·통신·변전·전차선등 지상설비를 국제입찰결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브코社및 영국의 GEC-TPL社로 부터 현물차관으로 도입키로 차관선을확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국제입찰에는 일본의 三菱、丸紅、江原산업등 6개국 20개사가 참여했으나 4백2량의 전동차등은 영국의 GEC-TPL社가、지상설비는 웨스팅하우스─와브코社가 각각 계약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연내에 이들 2개社와 가계약을 체결、내년3월31일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지상설비는 83년초부터、전동차는 84년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 현물차관의 조건은 연7·5%로 5년거치 15년간 분할상환하게된다.

한편 전동차는 주요부품만 도입되어 국내 大宇중공업에서 조립되는데 국산화율은 62%선이다.

陸參차장에 蘇俊烈中將

(사진)

정부는 제31대육군참모차장에 蘇俊烈중장(사진)을 지난14일자로 임명、발령했다.

◇蘇참모차장약력 ▲전남 求禮출신(53세)▲육사10기 임관▲美초군반수료▲육대졸업▲사단장▲육본작전참모부차장▲육군종합행정학교장▲교육사령관

★얼굴2면

◇戒嚴軍의 示威 폴란드군대가 폴란드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된직후인 지난13일 바르샤바 中心街를 행진하고있다. 이사진은 계엄령선포 하룻만인 지난14일 ABC·TV에 방영된 사진을 뉴욕에서 찍은것. 【뉴욕14日AP聯合=聯合】

"經協·엔借款 동시協議

日서 새腹案 28일實務陣來韓、外相회담日程논의"

韓日양국간의 외교 현안인 60억달러의 경제협력 교섭은 15일 日側이 조속한妥結을위한 구체적인방안을 한국측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해결의 轉機를 맞을것으로 보인다.

무라오까(村岡邦男) 駐韓일본공사는 15일상오 외무부로 崔東鎭 亞洲局長을방문、經協타결을위한 日側의 腹案으로 양국간의실무접촉을 先行하되▲이접촉에서는 당초 日側이 제의한 엔(円)차관외에 한국측주장인 60억달러문제를 아울러 협의하며▲내년 1월로 예상되는 韓日外相회담의 再開를위한 구체적인 日程과 議題역시 실무접촉을 통해 결정하자는입장을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측통들은 이날 무라오까公使를통한 回信에대해 한국側이 異議를제기하지 않는한 양국실무접촉을 위해 기우찌(木内昭胤)日외무성아시아 국장이 이달28일께來韓、한국측 실무자와 접촉을 가질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실무자접촉의 年內가능성에 대해 『별무리가 없을것이나 문제는 한국측 실무접촉의 窓口가 누가되느냐에 달린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무라오까 公使가 전달한 日側입장은 지난7일盧信永외무장관─마에다(前田)駐韓대사 요담에서 실무회담 엔借款 협상의 先行을 요청한 사쿠라우찌(櫻內)신임外相의 제의를 한국측이 거부한뒤 다시 마련된 修正提議로 알려졌다.

盧─마에다 요담에서 한국측은 60억달러의 一括타결을 거듭요청하고 이의 先行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떤 형태의 실무접촉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和蘭女王 訪韓수락

全대통령 親書전달 盧特使 오늘歸國

【헤이그=聯合】 全斗煥 대통령 特使로 네덜란드를 공식방문한 盧泰愚政務제2장관은 14일하오(현지시간)首都헤이그시내에 있는 王宮으로 베아트릭스여왕을예방、全대통령의 親書를 전달하고 베아트릭스여왕의 한국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베아트릭스여왕은 이날 盧장관을 접견한자리에서 현재 韓·네덜란드간에 유지되고 있는 우호친선관계에 만족감을 표명하고 訪韓초청을 수락했다.

베아트릭스여왕은 또한 한국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회복한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盧泰愚정무제2장관은 대통령特使로 유럽과 아프리카 공식방문9개국을 포함、13개국순방을 마치고 16일하오 4시40분 KAL便 귀국한다.

社會漫評

대폭 증설…

地平線

인구억제방안의 하나로 男兒選好를 막기위해 여자상속권을 대폭강화한다고한다. 인구증가추세가 이대로 가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것이 우려되므로 2명이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교육비융자등을 확대할 계획도 검토하고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인구증가원인의 밑바닥에 男兒選好경향이 깔려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웬만큼배우고、여자가 왜남자보다 떨어져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정작스스로 출산할때 보면 고추쪽을 바라는것을 흔히 보게된다. 가까운 예로 병원에서 출산했을때 고추가 태어나면 산비나 사례금까지 달라지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해산인사마저 『떡두꺼비같은아들이 태어나서 기쁘시겠습니다』하는것과 대조적으로 여아일경우엔 『순산했으니 다행입니다』 『너무나심하십시오. 다음엔 틀림없을테니』하는 식으로 다른경우가 적지않다.

▼우리사회에서 男兒選好의 뿌리는 깊다. 또 우리만큼 내외하는풍습이 엄격한사회는드물다. 중국서도 남녀격리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철저하지는 못했다. 가옥 구조까지 舍廊과 內室을 따로두어 男不言內、女不言外를 지켰다. 舍廊班、아낙네라고 부를만큼 남녀구별을 엄하게 한사회였다. 여성은 三從─친정에선 아버지에、출가해선 남편에、남편이 죽은뒤엔 자기가낳은아들에따르는것─이미덕이었다. 七去之惡(不順舅姑、無子、淫行、질투、惡疾、口舌、盜竊)에 얽매어 자식을 못낳으면 시집에서쫓겨나야 했으니 여권을 찾을래야 찾을수 없었던것이 사실이었다.

▼이런성흥속에 살아왔고 사내라야 집안의 대를 이었으니 男兒選好는 옛날엔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수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엔 母家長제도가 있어 고대에 송사하던 柳花夫人、仙桃聖母가 있고 駕洛王의 아들 일곱중 하나가 그어머니의성 許씨를 계승했다고 전해오지만 그후엔 철저한男權사회가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광복후에야 겨우 女權에 눈이 뜨고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답게 법체제를 갖추려고 애는 썼지만 男兒選好같은 舊習은 아직 젖어있는것이 오늘의실정이다.

▼사회풍속이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게 아니다. 하나 여자상속권을강화한다니 듣기에흐뭇하다. 아들選好경향이 조금이나마 줄게되면 더 좋겠다. 인구억제에 아들選好경향을 머리에둔 번발상은 발전적이다. 여권을 소리없이 신장 시켜주는 정책 방향에 갈채를 보내는 뜻깊은 이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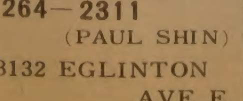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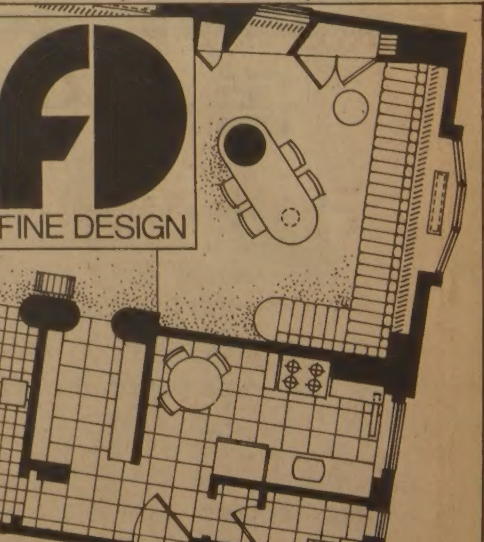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당진향우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향(당진)에서 오신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충남 당진에서 오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락처 : 233-4359(Mr. 장)
534-0237(Mr. 구)
당진향우회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물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기프트 샵, 새로 OPEN 됨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레프트, 허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대지및 가옥
2½에이커 땅에 가옥이 있으며 교회자리로 적합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 덕남

이스라엘, 골란高原 전격合併

非常閣議결정·議會승인
行政·裁判權적용 즉각發效

67년 中東戰때 시리아서뺏은 戰略요충…東예루살렘이어 두번째 歸屬

【예루살렘14日AP·UPI=聯合】이스라엘은 14일 67년 중동전에서 시리아로부터 탈취한 골란高原을 전격합병했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아침 갓퇴원한 메나헴·베긴수상의 주재로 긴급각의를 소집, 골란고원을 합병하기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는 3讀會까지 거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63대 21로 승인했다.

골란고원은 제1차세계대전이후 시리아영토가된 지역으로 요르단계곡과 티베리아스호수등 이스라엘 북부영토를 굽어볼수있는 전략요충으로서 의회가 이의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67년중동전이후 동예루살렘에 이어 두번째로 이스라엘에 합병됐다.

『「골란」高原法』이라고命名된 이법안은 ▲골란고원에 이스라엘의 재판권및 행정권을 적용한다 ▲이 법은 의회가 승인하는즉시 發效한다 ▲이법의 집행은 內相이 관장한다등 3개항으로 돼있다.

골반의 골절상으로 병상생활을 한후 갓퇴원한 베긴수상은 이날 의회에 직접 출석, 법안의배경을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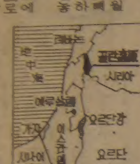
그는 이 연설에서 이법안은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조처』라면서 『사전협의를 해봤자 미국이 거부할것은 명백하며 우리들의 死活이걸린문제에 간섭할수없다』고말했다.

이 定着民 7천여명 居住

◇골란고원

골란고원은 지난67년6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땅이다. 시리아는 단하루동안의 전투끝에 이땅을놓치고 말았다.

골란고원은 해발9백m에 위치, 북으로 레바논 남으로 요르단과 접한 전략요충지. 넓이는 25㎞로 작지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다. 73년 10월 욤·키푸르전쟁이후 유엔중재아래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골란고원에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있다.



이스라엘은 30여개의 키부츠(집단농장)를 만들어 7천명의 이스라엘인을 정착시켜 원주민인 시리아의 「드루즈」族 1만여명과 영토를공유하고있다. 금년초 영토로 합병키위해 「드루즈」주민들에게 시민권부여를 제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골란高原주둔 이軍 증파

【예루살렘15日AP·UPI=聯合】이스라엘은 14일의 골란고원합병조치에대한 시리아측의 반대조치를 예상, 자국군대에경계령을 발동하는 한편 골란고원에 증원군을 투입했다고 이스라엘군라디오방송이 15일 보도했다.

골란고원에 탱크와 대포등을 반입치못하도록 규정한 1974년 협정에도 불구, 이방송은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시리아간휴전선쪽으로이동할것을예상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전했다.

"中東평화逆行 즉시취소를"
골란合倂 각국反應 시리아선 安保理소집요구

【카이로14日UPI=聯合】이집트는 14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조치를 불법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카이로주재 이스라엘대사를 불러 그같은 합병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고 이집트외무성의 한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이 모세·사손 카이로주재 이스라엘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을 합병키로 한것은 中東평화과정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그같은 합병결정을 철회토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런던14日UPI=聯合】미국·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14일 被占골란고원을 합병하려는 이스라엘의 조치를 신랄히 비난하면서 골란고원의 여하한 일방적인 지위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이건 미행정부가 이스라엘측 골란고원합병계획안의 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있지못하나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일방적인 골란고원의 지위변경시도에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다마스커스14日UPI=聯合】사우디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은 14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조치가 침략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유태인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낸 도발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으며 시리아는 이문제를 검토할 유엔안보리의 소집을 요청했다.

◇議會통과되는 골란合倂法案 이스라엘의 골란高原합병법안이 14일 이스라엘국회에서 거수표결로 통과되고있다. 안경쓴 가운데 사람이 메나헴·베긴수상. 【예루살렘14日UPI電送=聯合】

리비아滯留 美國人 疏開令에 1陣귀국

【트리폴리(리비아)14日AP=聯合】리비아에서 활동중인 미국 모빌社의 직원67명과 그 가족들이 레이건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14일 서독 루프트한자항공의 보잉737전세여객기를타고 리비아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사하로프 며느리에 蘇, 출국旅券을발급

【모스크바14日AP=聯合】노벨평화상수상자인 소련의 반체제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의 며느리 리자·알렉세예바양(26)은 14일 당국으로부터 해외여행을 할수있는 여권을 발급받았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빵을달라" 商店앞의 長蛇陣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닫았고 극소수만이 영업중인 폴란드 스체친의 한상점앞에 시민들이 식품을사기위해 장사진을 치고있다. 【베를린14日AP=聯合】

겉은 平穩·속은 殺伐

戒嚴선포 4일째맞은 폴란드 表情

국민들 內亂올까 걱정
勞組간부 總罷業지휘
학교·은행문 닫은채 商去來는 정상

勞組임시本部 설치

【바르샤바14日AP·AFP=聯合】폴란드 당국의 검거선풍을 모면한 자유노조지도자들은 14일 전국비밀파업위원회를 조직, 산하노조원들에게 계엄선포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감행하도록 촉구했다.

자유노조전국위원회의 미로스와프·크루핀스키 부위원장등 5명의 노조간부들은 이날 바르샤바주재 서독특파원들에게 발송한 성명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노조지도자들은 끝까지 『압제』에 항거할것이라고 전제, 노동자들이 엄격히 규제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보안군과의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파업을 벌이도록 호소했다.

한자유노조소식통은 바르샤바철강공장이 바르샤바지역의 『파업본부』역할을 하게될것이라고 말하고 자유노조 전국위부위원장 미로스와프·크루핀스키를 포함 그다니스크에 집결해있는 자유노조행동대원들이 자유노조의 전국 38개지부에 2명씩의 대표를 그다니스크에 파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노조간부는 자유노조가 계엄선포를 전후로 당국에의해 대거 체포된 노조지도자들의 부재중에 노조활동을 진두지휘하기위한 임시지휘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이 지휘본부는 그다니스크에 설치됐으며 그다니스크의 레닌조선소노동자들은 계엄군이 조선소내에 공수될것에 대비 자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통恐怖에 휩싸여

【빈14日UPI=聯合】폴란드국민은 소련의 침공위협보다는 내란가능성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폴란드로부터 빈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14일 말했다.

쇼팽특급열차는 매일 평균 2백50명을 실어날랐는데 이날은 겨우 12명에지나지않았다. 이곳에온 한 폴란드인은 바르샤바거리가 온통 공포에 싸여있다면서 『대다수의 폴란드인들은 소련의 침공보다는 내란을 예상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른 폴란드인 여행자는 13일 아침 바르샤바의 자택 창문으로부터 수백명의 병사와 수많은 탱크들이 지나가는것을 목격했다고말하고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전화기를 들었으나 불통이었다고 말했다.

武裝차량 거리질주

【바르샤바14日AP=聯合】바르샤바는 계엄선포 이틀째인 14일 현재 사업활동및 공공운송등이 정상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은행및 학교들이 여전히 문을닫고 있으며 계엄군이 거리 요소요소를 순시하는등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있다.

자유노조본부 건물주변에는 수대의 군용트럭이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폭동진압장비를 갖춘 경찰들이 건물외곽에 배치돼 전날의 젊은이 시위등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거리에는 지프와 무장차량들이 질주하고 있다. 민간차량들은 검문을 받기위해 빈번히 정차해야하는 불편을겪고있다.

바르샤바공산당본부에 이르는 포니아토프스키다리에는 기관총이 설치돼 더욱 분위기를 살벌하게 하고있다.

시민들은 식량구입을 위해 상점앞에 줄을 서거나 일터로 향하는등 평시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이는 불과 며칠전 노조활동이 극에 달했던 당시의 개방적이며 낙천적인 분위기와는 판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계엄군의 태도가 유난히 친절한것이 특이하다. 노조관계자들은 폭동진압경찰이 그다니스크의 노조회의장을 기습했을당시도 공손한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13일 西獨북부 브레멘에 도착한 폴란드 自由勞組대표단이 『가엾은 폴란드』라는 題下의 14일자 신문을 읽고있다. 1주일 방문예정으로 이날 열차편으로 브레멘에 도착한 이들은 이번 폴란드사태에 대해 이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브레멘(西獨)14日UPI電送=聯合】

軍서 폴란드支配대비
勞組 행동지침 마련

【파리14日AP聯合=特約】폴란드자유노조는 지난4월 군부의 폴란드지배가능성을 예견하고 노동자는 파업, 농민은 농산물 은닉, 군인은 명령 불복종으로 항거할것을 요구하는 일련의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자유노조바르샤바지부 간부회의는 지난 4월24일 합헌정부의 전복을 회피하고자유노조를 수호하기위해 쿠데타를 좌절시키기위한 방편으로 이지침을 마련했다.

서유럽에 배포된 이지침서는 자유노조의 와해와 개혁주의자의 고집은 반드시 방지돼야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총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은 자유노조나 폴란드시민들에 의해 수행되어야하나 자유노조지도자들이 무력하게될 경우 공장, 사업장,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의해 수행될수있다고 이 문서는 지시하고 노동자들이 점거하고있는 공장은 총파업의 결정적 전투장이며 일종의 요새라고 표현했다.

노조에대한 억압조치가 발동되면 모든 노동운동행동주의자는 즉시 소속된기업으로 복귀하고 파업위원회는 공장의출입을 통제하며 노동자들이 24시간동안 이들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만일 파업에 군을동원하면 소극적 저항을벌이며 군에의해 작업을강요받을경우 작업의리듬을깨고 생산을 지연시키며 문서처리에 관료주의적 규칙을 적용하도록했다.

國際협력 強力희망

【마드리드14日UPI=聯合】폴란드는 계엄선포에도 불구하고 기존대외정책을 그대로 유지할것이며 한국내위기를 타개하기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마드리드의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석중인 폴란드대표가 14일 말했다.

폴란드수석대표인 블로치미에르즈·코나르스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령선포가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임하는 폴란드의 자세에 어떤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질문에 현재나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의 증진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면서 계엄조처가 폴란드의 기존對外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시사하는것은 결코 아니라고답변했다.

政府에 복종을호소

【바르샤바14日AP=聯合】폴란드 라디오방송은 13일밤 이날밤 미사에서 행한 폴란드 가톨릭지도자 요제프·글렘프 대주교의 강론내용을 매 뉴스시간마다 반복해서 방송했다.

이날 강론에서 글렘프 대주교는 정부의 전권장악과 시민의 자유박탈을 비난했으나 교도들이 정부에 복종, 그들의 생명을 잃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것을 호소했다.

또 이 방송은 매시간마다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동료노조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지 않았으며 바르샤바근처에 머물러있다는 정부대변인 예르지·우르반의 말을 반복했다.

戒嚴선포 國內문제

【유엔본부14日UPI=聯合】폴란드정부는 14일 유엔주재 폴란드대사를 통해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폴란드계엄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루돌프·스라즈루하르 유엔대변인은 유게니우츠·비즈너 폴란드대사가 이날 발트하임총장을 방문, 약40분간 요담하는가운데 이번 사태가 순전히 『국내문제』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발트하임총장은 폴란드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표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外信통신망 두절

【프랑크푸르트15日AP聯合=特約】폴란드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한다음날인 13일부터 AP통신은 바르샤바지국과의 교신이 두절됐다.

오스트리아우편·전신회사는 AP통신 바르샤바지국과 빈을 경유하여 AP프랑크푸르트지국을 연결하는 통신선이 더이상 기능을 발휘하지않고있다고 밝혔다.

【런던15日UPI聯合=特約】로이터통신 바르샤바지국과 런던본사와의 통신망이 14일밤부터 두절되었다.

프랑크푸르트의 기술자들은 로이터통신의 통신망이 폴란드쪽에서 끊겼으며 아직 회복되지않고 있다고밝혔다.

東歐圈 시민들 영향파급 우려

【빈13日UPI=聯合】폴란드사태의 추이를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있는 동구권시민들은 13일 폴란드 당국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 여파가 동구권다른나라들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위성국중 1개국가에 정치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을경우 다른 동구권국가에도 사전예방조치가 취해졌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동구권시민들이 처음에는 비록 폴란드 자유노조의 활동에 지지를 보냈지만 이제는 폴란드당국의전국비상계엄령선포와 폴란드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설경우 파급될 긴장사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西歐, 抗議시위加熱

【런던14日AP·AFP=聯合】프랑스·서독·이탈리아·미국·네덜란드·호주등 서방세계의 수십만시위군중이 폴란드공산정권의 자유노조탄압조치에 항의, 14일 데모에 나섰으며 일부 젊은이들은 동구항공사 사무실을 파괴하는등 폭동에 가까운 격렬한 행동을했다.

메아리
수사력의 復元

금복주라고 하면 주당이 아니라도 귀에 익은 소주상표의 이름이다. 대구에 본사가 있고 영남일대에 강력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금복주 사장집이 세간 이목의 집중을 받게된 사건이 발생한것은 지난10월10일 하오10시께의 일이었다. 넓은 사장댁 뒷마당과 대문에서 각각 사제폭탄이 터지고 이를 전후해서 협박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이때만 해도 몇몇 당사자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알았으나 협박자들의 편지와 전화가 잇따르며 수억대의거금까지 요구하게 되자 11월2일 현상금 5백만원을 걸고 공개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세인의 관심은 이 사건으로 쏠리게 되었다.

그 아니라도 서울 원효로에서는 여갑부 尹景花씨집 집단살인강도사건이 일어났고 李潤相군 유괴피살에다 동대문세무서 姜貞植씨 살해, 상경했던 여대생 朴尙愍양의 피살사건등이 끄리를 이어 사건은 홍수시대라 할만했다.

이런 강력사건들을 바라보는 일반의 눈길은 마치 무법세태를 보는듯 당혹과 수심에 젖고 이들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해야할 경찰의 처지로는 禍不單行의 한숨에 젖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수가 있다.

더구나 큼직한 죄를지은 흉악범들이 잡히지 않고 있는마당에 윤노파 살해사건의 「범인」은 고문으로 만들어 내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설상가상으로 수사담당형사가 윤노파의 예금통장을 챙겼다가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하여 경찰의 체면도 말씀이 아니려니와 일반의 당혹 또한 걷잡을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나 그런 실의의 수렁에서도 우리 경찰은 이윤상군의 유괴살해 범인을 끝내 잡아냈고 금복주사장집 협박 범인 셋을 일망타진 했다.

세밑이 가까와 그 아니라도 스산한 거리에 나돈 이 경찰수사력 개가의 소식은 순식간에 일진의 신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신바람은 국립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하마터면 눈을 돌릴뻔했던신뢰를 되찾게 했다.

이윤상군사건 해결에 뒤이은 금복주사장집 협박범의 일망타진으로 경찰수사가 여론의 집중난타속에서 되려 복원력을 발휘하여 신뢰의 바탕을 한층 굳건히 다지게한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수 없다.

근하신년

여러단체,·사업체및 저희 도장에서 수련한 성인및 어린이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친지분들에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SON BROS 태권도센타
전화 : 763—1155
사범 손명수·손명철 근배

해밀톤 한인회 소식

송년파티를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하오니 해밀톤지구 교민은 물론 관계되는 분들도 꼭 오셔서 우리 가족적인 해밀톤지구 한인회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자 : 12월26일(토요일)
장 소 : 204 Park St. N. Hamilton Ont. (Cyril Church)

특별사항 : 중국식 디너를 마련했고 해밀톤지구 한인회 자체의 band부가 처녀출연를 하게 됩니다.
진행순서 : 오후8시~9시—칵테일
오후9시~10시—82년도 회장선출
오후10시~11시—디너
밤11시~새벽2시—각종 오락과 댄싱
연 락 처 : 524—1273, 528—4654

해밀톤 한인회 회장 조용구

謹賀 新年

培材學堂

우리 배재학당 동창및 가족들에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배재동창회
손명수외 임원일동근배

主婦노린 詐欺商魂 극성

市民중계실에 告發계기 捜査나서

"당신몫 그냥준다" 쥐새끼치기 / "子女 유치원취학" 미끼 월부책 / "요리강습" 빙자 厨房기구 판매

"솔깃한 숫법동원 바가지에 不良品"

순진한 가정주부들을 노린 각종 사기판매가 성행하고 있다。사기수법도 다양해 「쥐새끼치기식 방문판매」「요리강습」을 빙자한 주방기구판매」가 있는가 하면 「자녀유치원취학」을 미끼로한 월부책판매」수법까지 동원되고있다。이들수법중 쥐새끼치기와 취학미끼 월부책판매는 YMCA시민 중계실에고발된 사례가많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있다。

쥐새끼치기식 방문판매란 『물건살사람 5명만 끌어들이면 당신한몫은 그냥준다』고 꾀는 방법。

그러나 이솔깃한 꾐에넘어가 계약하면 바가지를 안쓸수 없게돼있다。

서울鐘路區昌信洞 S社등 10여개회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방문판매는 외무사원이 가정주부를 찾아다니며 4~5만원상당의 가정용품을 살사람 5명을 소개하면 한사람몫을 공짜로 준다면서 가정주부를 외판사원으로 끌어들이는 수법。

경기城南市佳陵1洞205 權斗伊씨(34·주부)는 지난달29일 한동네에사는 崔모씨가 찾아와 『집에서 놀면 뭣하느냐。다섯사람만 소개하면 설탕4포, 식용유등 생활필수품 4~5만원어치를 공짜로 받을수 있다』고해주민등록증을갖고 서울鐘路區昌信洞 S社에 찾아갔다。

S회사측은 상품을 만들면 선전비가 3억원이나 드는데 선전을 하지않고 물건을 소개해주는 주부들에게 물건으로 그냥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판매원거래카드를 작성한후 쌈화차2병, 코피1통, 코코아3통이든 박스를 건네주더라는것。

회사측은 10일이내에 물건을살 5명을 소개하지 못하면 받은 상품의 포장비·운반비등을 계산 10%를 가산해 변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사기판매수법에 속아 공짜로 받았던 물건값을 나중에 변상한는예가 허다하다는게 YMCA시민중계실의 이야기다。

또 이들 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대부분이 무명메이커 제품이고 실제로 시중가격보다 2배가까이 비싸다。S사제품인 6백g짜리 코코아의 경우 시중가격2천5백원의 2배나되고 쌈화차도 시중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이같은 판매방식은 60년대 美國에서 유행하다 사회문제가 돼기도했는데 그후 세계적으로 번져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까지 있다。

日本의경우 76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부당권유 금지와 상품인도로부터 14일이내에 소비자가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있도록규정, 그피해를 법률적으로 막고있는 실정이다。

자녀유치원 취학을 미끼로한 월부책판매피해를입은 주부는 서울東大門區 踏十里3洞464의51 李규선씨(41)。

李씨는 지난8월 한국가정교육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여자 외무사원으로부터 4살짜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라는권유를 받았다。

李씨는 당시 4살짜리아들이 나이가 어려 망설였는데 『나이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다』고해 한달분수강료 1만5천원과 가방값등 1만8천원을 내고 취학시켰다。

이때 외무 사원은 책 12권(정가6만원)을 월부로구입하라고 권유, 할수없이 구입했다는것。며칠후 외무사원들이 가리켜준 태양아파트 2층에 찾아가보니 유치원이 아니라 태권도장으로 낮12시부터 하오2시반까지 임시로 어린이들을 모아 가르치고있었다。

또 요리강습을 미끼로한 주방기구판매는 주로 여공을 상대로 요리강습을 무료로한후 『이같은 요리를하려면 이회사제품의 주방기구를 사야한다』고 꾀어 시중보다 비싼값에 팔고있다는 것。

이같은 주방기구는 5~6개월만되면 못쓰게되는 조제품이 대부분이다。【朴珍列기자】

새手法「연탄가스注入강도」잇달아

全州서만 5件발생

【全州=聯】최근 2개월동안 全州시내 중심가에서 연탄가스를 방안에 주입시켜의식을 잃게한뒤 금품을 털어가는 새로운 수법의 강도사건이 5차례나 잇달아 발생하고있다。

14일 새벽2시께 全州市高士洞1가409 남강옴식점 (주인 裵숙희·25) 안방에 강도가 침입, 방안에 연탄화덕을피워 裵씨부부를 질식시킨뒤 화장내등을뒤져 현금20만원과진주반지1개등40만원어치의금품을털어달아났다。

범인은 다시 담을 넘어 옆집으로 들어가 같은방법으로 가스주입장치를 하던중 집주인 차기연씨 (38) 에 발각돼 그대로 달아났다。

또 지난10월15일 새벽2시께 全州市高士洞1가447 한양불고기집 (주인 차남신·46)에 강도가 들어 연탄화덕에 화분을 뒤집어 씌운뒤 화분구멍에 고무호스를연결, 방안으로 가스를 주입시켜주인 차씨부부를 실신시키고80여만원어치의 금품을털어달아난것을 비롯 같은 수법의 강도사건이 高士동 일대에서만 4차례 발생했다。

경찰은 동네지리를 잘아는 2인이상의 범행으로보고 인근 불량배를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淫畫 판매30代구속

서울泰陵경찰서는 15일 음화책자를 만들어 팔아온 白潤康씨(39·전과7범·서울鍾路區崇仁2洞1435)를음화제조및 판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白씨는 지난79년4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城東區聖水洞2街224동방인쇄소에서 외제음화사진원판을 복사해 지난10월까지 4천3백여권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負傷者에 自保, 9천만원支給

【全州=聯】교통사고 부상자에게 9천3백43만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북全州市麟後洞1街597 李勝鎬군(14)은 15일 교통사고위자료와 한의금 치료비등 모두 9천3백43만6천원의 보험금을 한국자동차보험 全州지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李군은 지난79년6월16일 全州市校洞 남천교입구를 걸어가다 영업용택시에 교통사고를당해 요도파열·골반절골등의 중상을입었는데 앞으로도 평생동안 20일간격으로 요도확장치료를 받아야한다는것。

李군이 받은 보험금은 그동안의 치료비 2천1백여만원과 앞으로 치료비및 위자료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산정한 7천1백87만여원등 모두 9천3백43만원으로 한국자동차보험 全州지점 개설후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지급된 최고액수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機動車輛 60대 늘려

강력사건 專擔車도 78대增車

각종犯罪예방·신속한 初動捜査위해

강력사건수사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기동력이 대폭 증강됐다。

치안본부는 15일현재 서울시경에 3대, 기타 지방에는 경찰국별로 1대뿐인 형사기동대차를 모두 60대늘려 서울시내 23개경찰서를비롯 전국1급경찰서에 각각 1대씩 배치했다。

형사기동대차에는 10여명의 수사요원들이 각종감식장비를 갖추고 24시간대기하고 있다가 범죄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 신속한 초동수사를펴게되며 평상시에는 우범지역을 순회, 범죄예방활동을 하게된다。

또 수사용승용차량도 전국적으로 79대늘려 현재 서울의경우 경찰서별로 1대뿐인 것을 2대씩 추가배정, 모두 3대로 증차했으며 나머지33대의 수사용승용차는 부산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30여개경찰서에 배치했다。

이 수사전용승용차는 강력사건수사에만 전용하게돼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전국 각경찰서에 고성능 휴대용감식기 한세트씩을 지급키로결정, 미국에 주문했는데 내년초에 확보될것 같다。

이같은 조치로 서울의경우 형사기동대차가 현재의 3대에서 26대로 9배, 수사전용승용차는 23대에서 69대로 3배가 늘게된다。

한편 경찰은 내년에도 고성능지문판독기등 수사장비를 보강할계획이며 수사요원 1천9백여명을 증원하고 수사비도 대폭증액(총51억원) 서울·부산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수사력을 강화할방침이다。

올해 18명懲戒

서울大, 學園사태로

서울大에서는 올 한해동안 ▲축제방해사태 3회 ▲소요사태 5회 ▲불법유인물살포 4회 ▲불온낙서 14회등의각종 학내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와관련, 주동학생 18명이 제명·무기정학등 징계처분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하오 冠岳캠퍼스 교수회관에서 權彝赫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등 전임강사급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1학년도학사보고회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車培根학생부처장은 또 81년 한해동안 대학생1만8천7백32명, 대학원생5천8백4명등 전체학생의 58·1%에 달하는 2만4천6백36명 (연인원)에게 모두 40억2천8백만원의 기성회비면제등 각종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8백50여명의 학생이 부직을 희망, 이가운데 52·9%에 달하는 4백50명에게 번역, 교정등 부직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歸省客에 鐵道料金 할인검토

교통부는 이번 연말연시 귀성객특별수송기간 (30일~1월3일)동안 새마을, 우등, 침대열차를 제외한 특급, 보급, 완행열차에 대해 요금을 10%할인해줄것을 검토중이다。

교통부의 이같은구상은 구정에 몰리는 귀성객들을 신정으로 유도하고 15일부터 인상된 철도요금으로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취해진것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각조합에 권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이번 특별수송기간중 2백70개 열차를 증설하고 고속버스는 1백30대의 예비차도 모두 투입케할 계획이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第4의 人物」추적

警察 5차례脅迫편지는 편승犯行결론

「금복주」사건

【大邱=聯】大邱금복주사장 金泓瀜씨(55)집 폭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외에 또다른 공갈조직이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있다。

경찰은 그동안 金사장집에 배달된 9차례의 협박편지를 분석한 결과 그중 4차례의 협박편지는 이들이 보낸것으로 결론지었으나 나머지 5차례의 편지는 또다른 공갈조직이나 제4의 인물이 이사건에 편승, 금품을 갈취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1차편지와 경비를 협박한3차편지, 현금 2억원을준비, 서울 新羅호텔에투숙하라는 4차편지, 安東으로 오라는 9차편지사이에는 필적과협박내용에서 연결성이있으나 그밖의 2·5·6·7·8차편지는 전혀다르다는것。

한편경찰은 3명의범인중 시한폭탄과 권총을 제조, 휴대했던 黃載源씨가 이번사건외에도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것으로 보고여죄를 추궁하고있다。

한편 범인중 金日出씨 (37·大邱市南區梨泉2동 320의2)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13일 하오3시께 大邱中部경찰서 수사본부에 자진출두, 범행을 자백한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이날 전화로 『金日出이다。곧 경찰서로 가겠다』고 통보한뒤 자신이 보관하고있던 사제권총2정과 각종 공구를 보자기에 싸들고 경찰서로 찾아왔다。

한국일보

警察子女 장학금

금복주社長

금복주사장 金泓瀜씨는 14일『이번 사건의 현상금으로 내건 5백만원외에 사채 5백만원을 보태 모두 1천만원을 사건해결에 공이 큰 大邱시경의 직원자녀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金씨는『결정적인 제보등 일반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으나결국 사건이 경찰에 의해 해결됐으므로 그동안 노고가많은 경찰에 이돈을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無等도서관 開館

열람석3천여석, 규모 國內2번째

【光州=聯】光州시립無等도서관이 15일 상오 문을 열었다。光州市北區斗岩洞牛山공원안 4천여평의 부지위에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7백63평규모의 현대식건물로 지어진無等도서관은열람석3천여석으로 서울正讀도서관(4천2백96석)에 이어시립도서관으로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 도서관은 지난 3월光州에 들른 현대그룹鄭周永회장이 도내기관장들로부터 『교육문화도시로 자처하는 光州에 공공도서관이 크게부족, 많은 학생들이 애를태운다』는 말을 전해듣고 44억원의공사비를들여지어준것。

철만난 스키場에 낭만이…

◇설화(雪花)가핀 용평스키장。大關嶺에 영하10도가량의 추위가 연3일 계속되자 제철을 만난 젊은이들의 열기가 스키장을 누비고있다。관상대에 의하면 16일은 전국적으로 맑은후 흐려져 충청·강원·영서지방은 한때 눈이 내리고 기온은 다소 오른다。【용평스키장=權周動기자찍음】

金浦공항廳舍에 텔리가이드 設置

亞洲처음 外國人에 신속한 情報

외국관광객과 바이어들에게 각종 산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주기위한 산업용자동홍보장치(텔리가이드)가 金浦공항국제선청사에 설치돼 15일상오 李雄秀교통부차관 尹鎰均공단이사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가동식을 가졌다。

국내 大海기업(대표 文秉學)이 미국유니버설사의 신개발품을 도입, 운영하게된 이 텔리가이드는 한국을찾는 관광객은 물론 바이어들에게 국내주요 수출입업체와 상품및 호텔등에 대한 정보를 대형TV화면과 영어·일본어등 비디오·시스템을통해 소상히 알려주는 홍보역할을하게된다。

◇金浦공항에 설치된 텔리가이드。관광객이 공항에 도착즉시 호텔프론트나 구매상담업체와 통화할수있다。

세밑 10代強盗

가정집서 金品털어

15일상오11시30분께 서울 江西區禾谷本洞56의416 李경북씨 (26·여) 집에 李모군(18)과 洪모군(18)등 2명이 들어와 李씨와 어린이 3명등 모두 4명을 과도로 위협, 현금2만5천원과 87만2천원이 예금된 온·라인예금통장등 1백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털어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날 초인종을 눌러 남자가 없는것을 확인한뒤 李씨를 밀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전기줄로 일가4명의 손발을 묶고 안방에 몰아넣은후 금품을털었다는것。

범인중 李군은 통장을 꺼낸후 洪군에게『예금돼 있는 찾아올동안 李씨등을 지키고 있으라』고 한후 먼저 나가고 잠시후 洪군이 집을 나갔는데 李씨가 이빨로전기줄을 풀고 경찰에 신고, 李군은은행앞에서, 洪군은 이날 하오 4시께 李군과 만나기로 약속한 冠岳區奉天洞 모당구장에서 각각 붙잡혔다。

故金鍾卿의원 國會葬 엄수

故 金鍾卿의원(民正) 國會葬영결식이 15일상오10시 丁來赫국회의장등 동료의원들을비롯 입법·사법부인사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汝矣島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서 장례위원장인 丁來赫의장은 조사를 통해 『金의원의 한평생은 세속의 名利에는 일체 무관하고 오직 청렴과 결백으로 일관해 온 법조계의 큰 인물이었다』면서『30여년의 법조계 생활을 통하여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일이면 단 한치의 타협도 있을수 없었으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지는 분이었다』고 고인을추모했다。

故人은 春川市 松岩洞선영에 안장되었다。

실종日收여인 애정도피 결론

20代남자와 여관同宿 밝혀져

표주박

○…속보=일수여인 張蓮福씨 (28·大邱市南區大明5洞2·40)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大邱南部경찰서는 15일 張여인이 젊은남자인 權모씨 (28·大邱市北區鶴院3街)와 함께 지난7, 8양일간 忠武市에있는 한일장여관에 투숙한사실을 밝혀내고 張여인이 애정도피를 한것으로 결론, 수사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경찰이 이같이 결론을 내린것은 張여인이 權씨와 지난7일하오 한일장여관 201호실에 투숙한후 7, 8일 이틀동안 大邱에있는 남편金모씨 (42)에게 시외전화를 했으며 두사람이 부부처럼 정답게 행동했고 張여인이 혼자 외출하기도 했다는 여관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른것이다。

○…경찰은 지난12일 남편 金씨로부터 張여인이 지난 5일 일수돈을 받으러 간다며 나간후『집에 돌아갈수없다』는 전화가 걸려온뒤 실종됐다는 신고를받고 지난 13일 釜谷온천과 忠武로 형사대를 보냈었다。【大邱=聯】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9)을 만들어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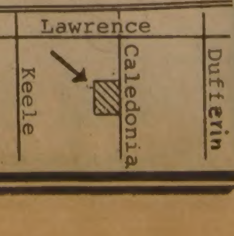
한국일보는 오직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광고부
533·2361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Dec.21 - Jan. 9 '82

		(spec)
Neilson Reg. bar	36x40¢	9.59
Cadbury Reg. bar	36x40	9.69
Rowntree Reg. bar	36x40	9.5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Breath savers	12x30	2.55
Pot of gold box choco.	450g	3.85
Allmondillos box choco.	400g	3.85
Black Magic box choco.	1/2 pd.	2.15
Turtles box choco.	400g	4.19
Toffifay box choco.	391g	4.29
Lee's snow ball	36x25	6.00
Neilson chunks	120x15	10.65
Moirs bag candy	24x25	3.09
Double bubble soft gum strawbury	20x30	3.45

※크리스마스때까지 일요일 오전중만 OPEN합니다.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공군발기모임

모이자! 창공의 용사들이여.
재 캐나다 보라매회(가칭)발기 총회를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전역 공군장사병 여러분들은 한분 빠짐없이참석하여 옛정을 나눕시다.
일 시 : 1981년12월29일(화) 오후7시
장 소 : 거구장
회 비 : $10
발기인 : 김대억(857-1683)
김두성(494-6519)
조석봉(749-9687)
위정남(251-9587)
이웅식(821-3876)
이창환(742-2421)
이광한(630-2400)
<가나다순>

발기인 일동

나의 이력서 〈韓字·元一漢〉 元一漢 ⑰

日帝때의 聖經교육

아버지가 安息年을 마치고한국에 돌아온 다음 우리집은 남대문밖 복숭아골에서 新村延禧전문학교 구내로 이사했다.

延禧洞42번지의 우리집은 항상손님이 많았다. 어느해 크리스머스이브에는 최고1백20명까지 모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延禧전문학교에서 교육학강의를 하면서도 손님치르는일에는 열성이었다.

나의 형제는 나와 1년반 차이가 나는 쌍둥이동생 존·토머스(한국이름 요한)와 제임즈·호튼(한국이름 제한) 10년차이의 리처드·언더우드(한국이름 得漢) 그리고 여동생 마거리트·언더우드가 있다.

쌍둥이 동생은 둘다 목사가되어, 요한은 光州에있는 호남신학교교수로, 제한은 미국 뉴욕주 오크필드교회 담임목사로 각각재직중이다.

10년차이의 또하나의 남자동생得漢은 현재 외국인학교 교장이다.

막내여동생 마거리트·언더우드는 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市에사는 외사 하크네스와 결혼해 살고있다.

나와 동생들은 모두 서울외국인학교에 다녔는데 나는 12년제중 미국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서울에와서 4학년으로 편입했다.

지금 생각해도 외국인학교는 미국의 어느학교에 비해 수준이 높고 학업분위기가 훌륭했다.

수준이 높다함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분위기가 좋았다는것은 학생수가 적어 오붓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외국인학교에서 손해가 전연 없었던것도 아니다. 정규과목은 수준이 높았지만 선택과목의 수가 적은것은 손해였다고 생각한다.

외국인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은 별 문제가 없었으니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문제는 논쟁이 많았다.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기독교활동을 할수있는 권리를 얻고자 했으니 일본인들은 한국교가 존속되기를 원한다면 성경교육을포기하라는 명령을 1915년에 내렸다.

그리고도 부족해 10년내에 모든 변경조치를 취하라고 강요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든지 기독교 정신이 말살이 되게마련인데 이같은 요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日帝 禁止명령…宣敎師들 실망

◇새문안교회에있는 할아버지 元杜尤박사의 기념비. 1928년에 제막된 이 碑는 지금도 남아있다.

3·1운동이후 總督府의「文化政治」로 겨우 숨통

이때 선교사들은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외에도 오늘날 서울의 많은 곳에서 볼수있는 영어성경교실과 같은 자율적인 종교교육시간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바랐다. 이 경우도 물론 학점이 없어도 좋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학교의 기본이념에 벗어나기는 하지만 교육자체를 못하게되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종교교육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편에서는 차라리 이런 틀밖이식의 교육을 하느니 보다는 폐교하는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비기독교적인 총독부는 기독교적이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행히 기한부로 정해진10년의 만에 해당하는해인 1919년에 3·1독립운동이 일어나 총독부의 무단정치가 소위 문화정치로 바뀌어 숨통이트였다.

신임사이또 총독은 기독교계통의 학교에대해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총독부의 기준에맞는 기구와 직원을 갖춘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학교들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선까지 타협이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1928년 延禧전문학교 부학장으로 피임됐다. 4년후에는 학장서리로, 다시 2년후인 34년에는 학장이 됐다.

延禧와 세브란스의학 전문학교의 두학교학장을 맡았던 에비슨박사의 은퇴에 따라 아버지가 延禧전문학교 학장을 맡은 것이다.

國産장난감 質이 떨어진다

놀이용에서 장식용까지…製造현황

장난감(玩具)이 어린이의 몸과 지능발달에 주는 영향은 무척 크다. 어린이의 생활 자체가 놀이의 연속인데다 장난감을 통해 모방과 창의력을 길러 낼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장난감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수있는 놀이기구에서 장식용으로까지 발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난감의 상당수가 질적인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機械연구소(소장 朴勝德)가 최근 실시한 우리나라 장난감제조현황 조사(玩具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 현재 등록된 장난감제조업체만도 2백67개소에 달하나 이들의 대부분이 단순한 목제완구를 만들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움직이는 장난감(作動玩具)을 만드는 업체는 51개정도에 지나지 않다. 더우기 이들 업체의 제품이 질적인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움직이는 장난감의 생명은 약한 電源으로 움직이는 소형모터에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데 국산 마이크로·모터는 일본제품에 비해 정밀도와 품질의 균일성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예를들어 같은 종류의 모터라해도 국산은 1:5 배정도 電力 소모가 많고 진동과 충격에 대해 약할뿐 아니라 녹도 잘 슬어 수명이 떨어진다. 또 출고가격도 1.5배정도 비싸다.

◇움직이는 국산 장난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고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2백67개業體중 51곳서 作動玩具제조

모터…고장잦고 電力소비 커

業體 共同연구·投資등 시급

다.

이같은 문제점은 마이크로·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와 軸, 바퀴등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완구류 수출액은 총2억~3억2배 만달러. 하지만 이중의 주종은 움직이지 않는 단순한 봉제완구가 차지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봉제완구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의 절반정도를 휩쓸고 있을정도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움직이는 장난감은 수량이 적고 품질이 떨어져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마저 외면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 어린이(9세미만)의 장난감 소비량은 한 사람 앞에 미국과 서독이 …

통해 지능과 창조성을 개발해가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소는 이같은 우리나라 완구제조업체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해 ▲동작완구의 공통부품외 기반부품▲핵심부품의 전문공장지정과 공업체계화, 자주적시장진출, 원부자재및 부품의 공동구입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업체단체의 자주적기능강화 ▲수출을 위한 동작완구의 국제시장진출▲어린이의 지능을 기르는 완구의 국내보급을 위한 선진국의 유명회사유치 전략수립▲청소년의 학교…

◆◆◆◆◆◆◆

18만원, 프랑스 16만원, 영국 13만원, 일본 11만원, 이태리 5만원선. 기다.

한편 정부는 국산장난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나갈 방침을 세우고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소는 우선 공기를 이용하는 자동차,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모터, 고무줄과 테이프·스프링을 이용하는 모형비행기와 글라이더등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다.

【李光業기자】

장난감 고르자면

色안옮고 다칠念慮없어야

1세정도면 밀고끄는것을

5세이상은 상상력맞춰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능개발에 알맞는것을 택하도록 한다. 유아의 장난감엔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유해색소가 묻어 나온다든지 다칠염려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유아에게는 시각과 청각운동에 도움을 주는것이 좋다. 생후 2~3개월부터는 누운채 고개를 돌리고 물건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수 있는 풍선·딸랑이가 좋다. 4~6개월경 부터는 손에 잡기 쉽고 가벼우면서 흔들면 소리가 나는 딸랑이·인형등이 좋다. 7개월이후엔 운동과 근육발달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고른다. 공·동물완구·나팔·피리등이 이에 속한다.

1세정도에선 밀고 끄는 장난감 즉·수레나 자동차와 집짓기·그림책등이 알맞다.

2~3세면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것이 적합하다. 그네·세발자전거·그림책·곰인형·소꿉놀이세트등이 좋다.

4~5세면 극자맞추기·색종이 접기·집짓기등이 좋고 5세이후엔 상상력을 키우는 그림색칠하기·움직이는 장난감등이 알맞다.

장난감을 사주면 잘 망가뜨리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는 나쁘게 볼일이 아니다. 어린이는 망가뜨리는 행위를 통해 배우고 만족을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283〉

血液·尿검사에서 胸部 낱낱이 확인하는 콤퓨터까지

檢査의 종류

옛날 이른바 名醫는 청진기와 손으로 [illegible]診과 打診하는 臨床診察만으로 대부분의 흉곽질환을 진단했다. 청진기와 손만으로 안될때 동원된것이 흉부X선검사정도였다.

이때문에 이들 진찰을통해 진단되는 병의 종류가 명의라해도 한정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엔 질병의 종류도 많아졌거니와 진단방법이 많이 개선되어 각종고가의 검사기계를 사용, 질병진단을 정확히 가려내고있다.

환자손목의 맥박이나 만지고 안색과 호흡상태를 보아 병을 진단하든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현대는 컴퓨터화한 각종 기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있다. 高價의 진단기재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그나라의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긴하나 일선의사의 입장에서볼때 진단수단의 획기적개선은 확실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만큼 병을 정확히 가려 올바른 치료를할수있기때문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의료수가가 높아진다는 어려움이 있어 환자의 경제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겠다. 이때문에좋은 검사법이 있어도 선뜻 권할수없는 입장에 빠지는경우가 있게 된다는것이다.

호흡기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의종류는 일반혈액검사 (血球, 血色素, 血沈速度등) 와 요검사, 혈액화학검사 (간장과신장검사포함) 이외에객담검사에서 실시하는 세균검사 (결핵균포함) 와 세포검사 (암세포검사포함) 가 있어서 어떤은 보통 3회 (3일간 받은객담) 실시하게되는데 이는 1日검사에서보다 진단율이 훨씬 높아지기때문이다. ×선검사로서는 단순흉부 ×선검사와 특수촬영으로 기관지造影術, 단층촬영술, 최근에 도입한 「컴퓨터」 斷層촬영술 (C·T) 등이 개발, 폐부위의 구석 구석까지 그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수있게 되었다.

폐질환진단에있어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발달은 굴곡성기관지 「화이버스콥」라고해서 5~6㎜굵기의 자유자재로휘어지는 가느다란 굴곡성내시경의 등장이다. 이 굴곡성기관지 화이버스콥의 등장으로 이를 코나 입을 통해서 기관지내에(局所마취후) 삽입, 기관지내의 3차 4차기관지까지 샅샅이 검사할수있게 된것이다. 이밖에 모든 폐질환자에서 실시되는 폐기능검사와 특수한경우 실시하는 폐血流量 및 換氣量측정을위한 同位元素검사가있고 폐혈관栓塞病 (폐혈관이 막히는 병) 진단에필요한 폐혈관조영술등이 이용되고있다. 肋膜炎에서 물을 빼는데 필요한 肋膜조직검사와 외과적으로 淋巴腺이나 폐조직을 조금떼내어서 하는 조직검사등이 호흡기병을 정확히 가려내는데 이용되고있다.

金 建 烈 【醫博·서울大 의대 내과교수】

자동차의 엔진點火에 電子制御式장치 등장

한국機械硏 金光祚씨 개발

기름덜들고 엔진壽命 연장

◇金光祚씨

자동차 엔진의 연료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종전 기계식 點火장치가 갖는문제점을 크게 개선한 電子制御式 점화장치가 한국機械연구소 電子機器과장 金光祚씨 (40) 에 의해 개발됐다.

현재 자동차 엔진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점화장치는 엔진의 회전속도와 負荷量에 따라 點火시기를 알맞게 조절할수가 없다. 기계식점화장치는 점화시기를 개략적으로 정해놓고있기때문. 이때문에 기계식 점화장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최근 세계가 高速 고성능엔진개발과 함께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을 줄이기위한 새로운 점화장치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은 여기에 있다.

金씨는 이같은 문제를 半導體를 이용, 간편한 방법으로 자동제어할수 있게한 것이다.

피로가 쉬 나타난다. 불완전 연소현상이 나타나 많은 양의 공해물질을 대기중에 뿜어내고 엔진의 연료소모율을 높이게 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엔진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마다 엔진의 상태를조정(Tune Up)해야하는 부담이 따른다.

金씨는 1년간의 실제주행 실험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전자제어식 점화장치가 플러그의 수명을 크게 연장하고 저속과 고속특성을 향상하면서 신뢰성을 높일수 있을뿐 아니라 엔진의 연료소모율을 14%정도 낮출수있었다고했다.

이스트…癌푸는 열쇠로

독특한 生殖활동 癌細胞와 같아

최근 영국의 서섹스大 폴너스와 레이비드·비치박사팀은 빵이나 맥주를 만들때 사용하는 酵母菌의 일종인 이스트(酵母)의 독특한 생식활동이 암의 원인을 푸는 열쇠가 될지모른다고 주장,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스트는 여러종류의 세포의 사슬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이스트는 살아가는동안 중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그자체가 두마리의 새로운 이스트로 분열할것(無性生殖)인지, 아니면 다른 이스트세포의 도움을받아 분열할것(有性生殖)인가 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인체세포가 해야하는 결정과 비교될수있다. 인체의 세포도 두마리의 새 세포로 분열할것인지 아니면 그런분열을 그만두고 분화과정을 거쳐 간장, 뇌나 심장과같은 특수화된 기관세포가 되는 특수세포로 되어버릴것인지 하는 양자 택일의 결정을 부단히 연속적으로 내려야한다. 따라서 분열할 것인지 아니면 生殖으로 들어갈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스트의 메커니즘은 인체세포의분화학적 규명에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수 있다는것. 뿐만아니라 이같은 문제는 암의 규명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암세포는 절대로 분화하는 일이없다. 암세포는 분화대신 끊임없는 분열만을통해 증殖을 계속해간다. 마치 분화나 분열이나의 결정을 내리는 스위치가 분열쪽으로 고정되어 버린것같은 상태인것이다.

놀라운 일은 무성생식을통해 분열해 가던 이스트 가운데 갑자기 성적을 바꾸어 환경에 관계없이 이번엔 유성생식만을 통해 분열해가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일이있게된다는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스바사와 비치박사팀은 이같은 현상이 이스트의 정상적인 생활과정뿐아니라 여러가지 병과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을 규명할때 암의 원인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英國대사관제공】

바다에서 플룻을 〈5〉

梁順錫 作 / 金鈴 畵

「연주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다시는 연주하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나의 연주를 듣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으나 그 안도감을 배경으로 무엇엔지 모를 증오가 치솟았다. 그 악기는 내게 유일한 우월감이었다. 부모가 없는 서러움, 가난, 외로움에서 오히려 오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악기 때문이었다. 타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나는 내 악기에 그 모든 정열을 남김없이 바칠 수 있었다.

처음 화강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대뜸 내게 말했다.

「넌 정열을 가진 애야」

그렇게 말하는 그녀도 정열을 가진 여자였다. 내가 기숙사 뒷산에서 진종일 플룻을 불면 그녀는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넌 처음 보고도 없는 정열을 가졌구나」

「언제까지 말는 언니의 정열도 지지는 않겠어」

정열이란 무엇일까? 외롭고 궁핍한 내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타오르게 하였던 정열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그런데 지금은? 내 정열의 근원이었던 악기는 이제 싸늘한 은빛 금속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정열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그가 정열이란 언어를 부디 이해하지 않기 바라며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암시하거나 위장하지 않아왔다. 그것은 무방하다. 도시를 떠나면서 내게 허용했던 발작상태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른다. 거짓 울음, 거짓 눈물, 거짓 감동, 거짓 언어, 이것들로부터의 발작을 허용하리라 내 자신에게 말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와진 인간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에나 던져질 공허한 울음을 나는 그에게 던졌다. 내 질문을 받은 그의 얼굴이 말할 수 없이 화려하게 빛났다. 가장 듣고 싶던 말을 오래 기다리다 이제야 듣게 된 사람처럼.

「있으신가요?」

나는 그의 아름답게 피어나는 얼굴을 놓치지 않으며 반복했다.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정작 대답을 할 때의 그의 얼굴은 화려함이 가셔진 뒤의 서늘한 그늘만이 남아 있었다. 어찌 한 남자의 얼굴이 저다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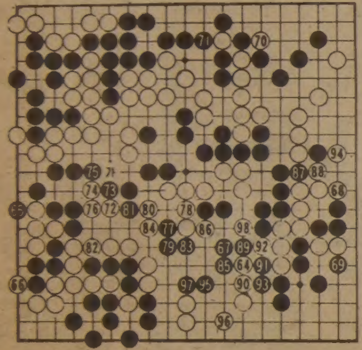
나는 순간 나를 의식하지 않은 그의 표정의 변화에서 기이한 단절감을 느꼈다. 그의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그를 내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과오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남자에게는 저 남자만의 인생이 있는것이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정열과 고뇌와, 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저 남자만이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기쁨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치졸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자리를 함께 하고 몇 마디의 말을 나누었을뿐인 남자가 내 조롱 안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자신감이었는가.

나는 그의 피어났다가 사그라지기 까지의 표정을 바라보며 비로소 그의 개성, 그의 삶을 인정한 셈이었다. 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성이 얼마나 많은 과오를 범했던가. 인간에게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이기성이 아니었던가.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8譜 164~198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姜 勳〈2勝0敗〉

黑(4段) 鄭壽鉉〈1勝1敗〉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대마가 사뭇 쫓기는 안타까운 기분을 이해할 것이다. 빚에 쫓기는 것보다 심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는가 보다. 낱낱이가지만 이무협의 鄭4단이 꼭 그런심정이 아니었나 추측해본다.

좌하에서 중앙까지 우측으로, 그리고 다시 하변을 향하여 쫓겨가는 黑대마는 갈수록 험상궂게 부딪는다. 판세는 물론 공배를 두면서 당하나는 黑의 패색이 너무도 짙다. 그런데도 반격의 기회는 도무지 안보인다.

이제와서는 姜4단이 오히려 대마를 잡자는 생각에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을 갈추지 못한다. 鄭4단으로서는 어차피 패한바에야 피로운 중에서도 대략한 패국을 서슴치 않고있었다.

黑軍, 마침내 玉碎

黑69만해도중앙대마에가일수하면활로가 되어 무사히 수습되지만 대신 우변을 白이 69자리에 끊어와 黑3집을 잡으면 승산이 없다해서 버려본 것이다.

그리고 白70. 이것도 마치 초읽기에 쫓기면서의 시간연장을 노리는 것 같지만 실은 빈틈없는 그「응수」를 살피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白72, 74로 준엄한 공격을 재개한다. 당장 白「가」로 끊기는 것이 눈에 띄지만 黑은 이곳을 연결할 겨를이 없다.

黑77이하는 다분히 유쇄수단. 원래 전문가는 던지는 시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결코 요행을 바라는것은 아니다. 이왕이면 장렬하게 산화하겠다고, 鄭4단도 白98에서야 비로소 돌을 거두더니 「철저히 당했는걸」하며 오히려 시원스레 말했다. 【一九】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서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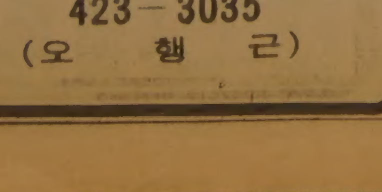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바르샤바서 3千餘명 逮捕

波勞組 석방하면 協商"聲明
戒嚴선포…武力통치3日째

【바르샤바14日聯合=外信】12일 자정 (한국시간 13일상오8시)을 기해 폴란드 전역에 계엄령이 전격적으로 선포된후 계엄당국은 월요일인 14일상오 전국의 노조원들이 자유노조의 총파업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첫 시련에 부닥쳤다。 한밤중에 군대와 폭동진압경찰, 탱크및 무장군용차량들이 전국에경계망을 치자 자유노조의 모든활동은 중단됐고 통신도 완전두절된 가운데 폴란드국민들은 주요시민권을 제한받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로마가톨릭교회의 조셉·클램프 대주교는「시민권및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의존하지말것」을 폴란드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계엄포고로 폴란드국민들은 파업 공중집회및 비공식활동이 금지됐고 여행도 제한됐으며 8시간의 야간통금이 실시되는 가운데 범법자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군사법정이 설치됐다。

★관련기사2·3면

폴란드계엄당국은 14일아침 폴란드국내의 각공장과 작업장의활동이 재개됨에따라 첫번째시험을 맞고있다。 그러나 바르샤바지구의 여러작업장을 점검한결과 지도자를잃은 자유노조원들이 어떤종류의 파업이나 항의를 벌이려는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조소식통들은 지난13일새벽 90여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바르샤바 자유노조지부를 경찰이 덮쳐 3천여명의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서방특파원들은 바르샤바 지구에만 머물도록 규제를 받고있으며 전화나 텔렉스에의한 통신이 두절되고 있으나 정부관리들은 텔렉스가 14일중 재개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자유노조원들에 의해 그다니스크에서 소집된 자유노조원회는 13일밤 계엄령선포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全國罷業委 구성

바웬사의 보좌관인 미로슬라브·크루핀스키가 서명한코뮈니케는 당국에의해 연금된 자유노조간부들의 석방과 긴급사태의 해제를 요구했다。 코뮈니케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경우 우리는 합의서를 작성하기위한 회담을열것이라고 말했다。 코뮈니케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치안군과 불필요한충돌사태를 피하기위해 자제와 평화를유지해줄것을 호소했다。

【바르샤바13日AP UPI=聯合】 계엄령선포에이어 일부 자유노조 행동대원들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촉구하는 전단을살포했으며 약1천명의 노조지도자들이 바르샤바지부 건물앞에모여 계엄군의 해산명령을 무시한채 군트럭에 눈덩이를 던지고 야유를 퍼부었으나 곧 무력진압되었다。 13일밤 그다니스크에서 바르샤바에 도착한 자유노조의 한 코뮈니케는 자유노조지도자들이 전국파업위원회를 결성했으며『어떠한 노조, 어떠한 조직도 그들의 지도자들에대한 탄압과 노조의권리가 박탈되는것을 용납할수없다』고 선언했다。

社会漫評

폴란드………

外部와 단절…경제軍事化…通禁실시…"動員불응엔 死刑"위협
勞組일부 總罷業호소…클렘프大主教 "人權 침해말라" 비난

【바르샤바13日UPI AP=聯合】 야루젤스키폴란드黨제1서기겸 수상은 12일 자정(한국시간 13일상오8시)을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자유노조의 모든활동을 중지시켰다。

야루젤스키수상은 계엄령 발효와함께 경찰에의해 자유노조간부및 반체제인사 1천여명에대한 일제 검거선풍이 시작된지 6시간뒤인 13일상오 6시(한국시간 하오2시) 약25분간에 걸친 전국방송연설을통해 자유노조의 파괴적 활동으로 국가가 존망의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 노조의 모든활동을중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에따라 통치권을 행사할 21人구국군사평의회가 구성됐음을 발표했다。

폴란드당국의 계엄령선포와함께 소련군의 동향에이상은 탐지되지 않았으며 소련당국은 이번사태에 소련군이 전혀 개입된바없다고 부인했다。

13일 야루젤스키수상을 중심으로 4명의 국방차관을 포함한 15명의 장성, 그리고 5명의 영관장교들로 구성된 21人구국군사평의회는 국가운영의 전권을 위임받고 계엄포고령을 발표, ▲자유노조의 활동중지 ▲하오10시부터 다음날새벽6시까지 8시간의 통금실시 ▲관영신문방송을 제외한 모든보도매체의 보도활동중지 ▲13세이상 시민의 신분증휴대 ▲모든 유흥활동의 중단 ▲對外텔렉스·전화통신의 폐쇄를 명령했다。

군사평의회계엄포고령은 또 한 당국이 앞으로 수송·우편·에너지源관리를 포함한 경제부문을 軍事化할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경제부문에 동원될 민간인들은 현역군인으로 간주될것임과 동시에 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군사재판에 붙여져 최고사형까지의 엄한 처벌을 받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엄령이 선포된후 주요도시에는 중무장한 군인과 탱크·장갑차들이 거리를 순찰하고있으며 反政소요가 있을경우 武力을 사용하라는 상부지시를 받았다。

檢擧선풍

◇폴란드경찰이 13일 계엄령선포와 노조간부체포에 항의하는 데모대에섞여 함께 시위를 벌이던 한도망자를 체포하고있다。 【바르샤바 13日UPI電送=聯合】

바웬사 逮捕 안된듯
바르샤바附近서 當局과 交涉說

【바르샤바14日UPI聯合=外信】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정부당국의 계엄령 선포후 체포되었다고 14일보도됐다가 다시 정정보도됐다。

東獨관영ADN통신은 13일밤 바웬사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으며 폴란드국영 바르샤바방송은 ADN통신보도가 있은직후 정부대변인 우르반의 말을 인용, 바웬사가 구금되지 않았으며 노조최고지도자들의 대우를 받고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노조지도자 바웬사의 행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않고있는데 정부관리들이 바웬사에게 총파업을 반대하는발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정부관리들은 13일 바웬사가 바르샤바부근에서 당국과고위회담을진행중이라고말했다。

西部지역 軍隊 大移動
스웨덴紙 "蘇軍 포함된지도"
야루젠스키 戒嚴선포直前 바條約軍蘇사령관을 만나

【스톡홀름14日AFP=聯合】 폴란드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3일 폴란드서부지역에서 소련군이 포함된것으로 보이는 대규모부대이동이 있었다고 한 스웨덴기자가 14일 보도했다。

스웨덴 티티통신소속의 이 기자는 폴란드입국이 거절된 후 폴란드 연락선 바르벨로에 승선, 스웨덴의남쪽항구 이스타드로 향하던중 동승한 스웨덴인 목격자들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왔다。

【바르샤바14日AP聯合=外信】 야루젤스키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은 1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위한 마지막 조치로 바르샤바조약군 육군 총사령관인 빅토르·쿠릴코프 소련군원수를 이날바르샤바 동쪽 50㎞지점에 있는 민스크마조비키 군사공항에서 만난것으로 알려졌다。

"海外轉地훈련 技倆개발을"
全대통령, 籠球선수권大會 참관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13일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奬忠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36회 전국 男女종합농구선수권대회 太平洋화학對 朝興은행, 해군對 漢陽대학 경기를 약2시간30분동안 관전하고 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했다。〈사진〉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朴英秀서울시장, 李東燦대한농구협회장, 太平洋화학팀의 申東坡감독, 朴贊淑, 洪惠蘭선수, 朝興은행팀의 孫炯元감독, 崔承姬선수, 해군팀의 南命祐감독, 漢陽大팀의 金容根코치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長身의 외국선수들과 겨루려면 우리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대회가 끝나면 농구남녀대표선수단을 해외에 보내 轉地훈련을 통해 국제경기경험도 쌓고 기술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운동팀을 갖고 있는 軍이나 기업체는 선수들에게 영양가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등 선수들의 체력강화, 技倆향상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선수체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教育稅法등 통과
國會本會議

국회는 14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教育稅法개정안등 6개法案과 상품공동 기금설립협정비준동의안등 5개同意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또 蔡汶植국회부의장으로부터 지난9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議會연맹(IPU) 제16차총회참석결과를 보고 받는등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본회의를 계속열어 일반案件을 처리한뒤 정기국회를 閉會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運營委를 열어 民韓黨이제출한 정치활동 被規制者해제건의안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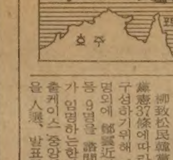
이날 本會議에서 처리된法案및 同意案은 다음과같다。

◇法案=▲교육법개정안▲租稅減免규제법개정안議案의 件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개정안▲軍人보수법개정안▲공군기술 고등학교 설치법개정안▲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개정안

◇同意案=▲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同意案▲49년 8월12일자 제네바協定에 대한 추가議定書비준동의안▲한국과 스웨덴간의 所得에대한 조세의 2重課稅회피와脫稅방지를위한 協約비준 同意案▲국제도로 免稅통관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貨物의 국제운송에 관한 關稅協約가입同意案▲82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同意案

파푸아뉴기니國에 常駐大使館을開設

정부는 南태평양의 島嶼國인 파푸아뉴기니에 14일字로 常駐대사관을 개설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80번째 常駐대사관을 갖게됐다。



諮問委員6명 追加
柳民韓黨총재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4일 黨憲37條에따라 諮問會議를 구성하기위해 이미 임명된6명외에 鄭靈近씨(6代의원)등 9명을 諮問위원으로 추가임명하는한편 당무회의선출케이스 중앙상무위원 30명을 人選, 발표했다。

이로써 중앙상무위원은 當然職을포함, 모두 1백55명으로 확정됐다。 추가임명된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鄭靈近 鄭一相 方用煥 張錫熙 朴泰遠 徐俊容 朴魯精 閔丙吉 鄭光謨

금복주社長협박犯 3명 檢擧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약초를 즐기는 것은 동양사람만의 풍속이 아니다。 약초소비량이라면 가난한 우리보다는 오히려 유럽사람들이 단연 앞서는것같다。 정확한 숫자는 알수없지만 예를들어 이탈리아에서는 한햇동안 2억7천만달러(1천9백억원)어치의 약초가 팔리고 있다한다。 이것은 보건성의 통계이고 사실은 그3배쯤 될것이라는 짐작이다。 약초라면 서독이나 프랑스사람들도 뒤지지않는다。

▼서독에서는 百里香, 보리수꽃잎, 노란 국잎, 박하잎등 약초로 달인 茶가 70년대들어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78년에 벌써 9천4백만달러(6백58억원)어치의 약초를 달여마셨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약초붐이 부작용이큰 화학약품을 꺼리는 현대인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있다。 말하자면 자연속에서 건강을 찾자는것이다。

▼약초붐과 때맞춰 미국농무성은 세계각지에서 모아온 1만5천여가지의 나무나 풀의 씨를 25년동안 분석하고있다。 처음에는 수익성높은 농작물을 찾으려는게 목적이었지만 연구하다보니 갖가지 의약물질을 발견하게됐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한국에도 있는 朱木의 씨가 백혈병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결과를 얻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서 선진각국들이 지금 약초연구에 열을 올리고있다。 WHO의 연구팀들이 티베트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녹색 완두콩의 피임효과때문이라는 것을 최근 밝혀낸 것도 그중의 하나다。 WHO는 지난79년 개발도상국들이 약초를 써서 병을 고치는 풍부한 선조들의 경험을 활용하도록 권고한 일이 있었다。

▼WHO의 권고는 현대적 의료시설이 모자라는 가난한 나라들에 편법을 쓰도록 권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편법이상의 의미가 있다。『동양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은 한국의 독창적인 의학문헌』(洪文和박사)이라는「동의보감」이 그것을 상징하고있다。 25권의 방대한 이책은 잘 알려진것처럼 許浚이 지은 것이다。

▼동의보감은 金正浩의「대동여지도」와 함께 양반이 아닌 중인이 이나라의 문화발전에 공헌한 위대한 업적의 하나였다。 그로부터 3백70년만에「漢方기준처방집」이 나왔다。 보사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동사업으로 나온 이 방대한 책은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50가지의 의학문헌을 추려 새로운 안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위대한 醫聖인 許浚의 동상이 서울 한복판에 서야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종합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RD HWY401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Kingston Rd. Lawrence Ave. E.
282-2820

바르샤바 暗黑의 週末

波자유노조、沈沒할것인가

「빵의 갈망」→「體制개혁」試圖→「戒嚴宣布」까지

살얼음판을 걷는것만 같던 폴란드 改革운동은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自由노조 자체의 荷重을 감당못해 침몰해가고 있다.

빵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노조운동이 사회變革으로 목표가 移行되고 그것이 다시 체제붕괴를 위협하는 국면으로 급진전함에 따라 폴란드 自由노조는 예상했던대로 黨·軍·정부가 일체가 된 국가公權力의 일격을 받고 말았다.

외부로 연결되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폴란드人들은 자유노조에 가해지는 武力탄압이 소련軍이 아닌 같은 폴란드군대에 의해서 행해지고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찾아야 할 처지인듯하다.

현지시간 13일자정 토요일밤을 해 시작된 검거선풍 다음에 나온 야루젤스키의 성명은 오늘날 폴란드가 지닌 危險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한사람의 軍人이자 동포로서 무정부상황아래서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있다. 포고문에는 공산사회 최고권력의 상징인 당 제1서기라는 직함은 빠져있었다. 自由노조가 개혁의 주도세력으로서 공산당과 대체하겠다는 으름장을 의식했기 때문

리듬調整 실패했다

만은 아닌것같다.

당원을 모두 끌어모아봤자 2백50만밖에 안되는 공산당은 수에 있어서 1천만회원을 거느리는 자유노조와는 상대가 안된다. 하지만 그들에겐 통치권력이 부여돼있다. 정부도 군대도 공산당아래있고 自由노조까지도 오랫동안 黨우위원칙을 인정해온 터이다.

이번 폴란드의 격동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속도와 質量을 얻은 자유노조운동이 과격파의 수중에 들어가 대중운동의 리듬을 제대로 조정해나가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自由노조는 지난10월대회에서 「국가의 재탄생」으로 목표를 고쳐잡고 지난주 그다니스크전체회의에서 공산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이것을 정부가 수락하지 않으면 오는1월15일 노조자체에서 이를 실시하며 현 지도체제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겠다고 못박고 나왔다. 이것이 실현되면 새의회구성을 위한 자유민주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의는 끝을 맺었다.

이러한 단계적 개혁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현지도층은 대부분이 물러나야하며 공산당을 대신하는 정치적 代役은 있을수 없다는 원칙도 붕괴돼 체제유지자체가 도전을 받게된다. 체제에 대한 도전은 비단 폴란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련의 東歐지배에 균열을 가져오게돼있다.

蘇介入막기위한 先手일수도

따라서 자유노조를 현 폴란드지도층이 분쇄하지 않으면 결국 소련이 그렇게하고 말것이다.

몇차례 노조와의 對決고비때마다 무력사용을 억제해온 야루젤스키가 애국심에 호소해서 자제를 요망한것은 누구나 내다볼수있는 사태악화를 막고 폴란드人끼리 수습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수있다.

야루젤스키가 노조 강경파와 동시에 기에레크 前당제1서기등을 체포 失政의 책임을 뒤늦게 묻는조치는 노조지도자 바웬사를 검거하지 아니한 결정과 함께 노동자 회유에 적극 신경을 쓰고 있음을 반증하고있다.

지난56년 포즈난폭동이래 대중을 파고든 폴란드 자유화운동은 70년노동자봉기후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켜주지 못하는대신 생활수준 향상시켜 국민의 불만을 완화시키려고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가속도를 얻었다.

그것이 국민의 소비性向에 불을 붙여 정부재정에 무리가 온것이 이에따라 불가피해진 쇠고기등 식료품값인상에는 이와 맞먹는 임금인상요구가 노동자측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것을 공산사회가 지닌 체제의 결함이라고 보았기때문에 黨과 정면대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폴란드공산당은 자유노조의 와해를 위해 자유노조에 당원을 침투시키는 공작도 폈으나 이들은 오히려 자유화운동에 가담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內燃끝에 결국 폴란드式타협점 찾을듯

폴란드사태의 浮沈에 따라 우려되던 소련의 개입가능성은 객관적 여건때문에 별로 높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지난 75년 헬싱키선언에서 서방은 東歐에 대한 지배현상을 합법화시켜준만큼 소련이 침공한다해도 實力으로 맞설 태세는 아니다. 그런데 소련역시 때마침 解氷기운이 도는 東西관계를 더욱 악화시켜갈 이유가 없다.

러시아족과 게르만민족사이에 끼어 외세에 저항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체질로 굳혀온 폴란드人들은 결국 內燃끝에 폴란드식 生存양식을 놓고 타협점을 찾게될것 같다.【金炳武 기자】

◇계엄령선포후 폴란드軍장갑차가 바르샤바의 自由勞組본부근에 포진하고있다。(이사진은 13일 美ABC「TV에서촬영한것)【뉴욕13日AP電送=聯合】

워싱턴表情

"軍部 자제촉구 勞組와妥協하길" 美

【워싱턴14日=曹淳燉특파원】폴란드의 야루젤스키 구국군사평의회가 12일밤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노조과격지도자들을 체포했을때 레이건대통령, 헤이그국무, 와인버거국방장관은 모두 워싱턴에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폴란드사태가 일어난후 12일밤 주말휴가를 지내던 캠프데이비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외상회의참석때문에 브뤼셀에 있는 헤이그장관과의 폴란드사태를 협의한것으로 보도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다음날인 13일 아침에도 백악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점은 美행정부가 폴란드사태를 심각한것으로 보았으나 「위급한사태」로는 보지 않는다는것을 뜻했다.

13일 정오 (미국시간) 가 조금지나 헤이그 국무장관은 브뤼셀에서 폴란드사태는 폴란드 국민들이 외부간섭없이 스스로 어려운문제를 당사자들끼리 협상하고 타협하여 해결해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폴란드사태에 소련이 개입한 흔적은없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예정했던 이스라엘·터키·인도·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하고 14일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상회의에 참석했던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런던에서 13일 가진 간략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폴란드사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폴란드에서 싹튼 자유의 싹이 격어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보통주말휴가보다 약간 시간을 앞당겨 13일 하오2시반께 백악관으로 돌아와 『자유세계국가들과함께 소련의 폴란드개입을 심각하게 지켜본다』고 비교적차분한 코멘트를 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거의같은 시각에 워싱턴에 도착한 와인버거장관은 폴란드에 새로운 사태발전이 없다고 짤막하게 코멘트한후 백악관으로 직행, 레이건과 약1시간 만났다.

레이건 대통령과 거의같은 시각에 워싱턴에 도착한 와인버거 국방은 『폴란드에 새로운 진전이없다』며 백악관으로 직행, 레이건과 1시간동안 만났으나 성명은 없었다.

국무성이 폴란드에 현지대사관 무전을 치며 사태파악특별반을 구성한반면 백악관은 비교적 조용했다.

미국은 소련의 폴란드개입에 대해 경고하면서 동시에 미국도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사태추이에 관심을 돌린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사태가 폴란드군부의 독자적행동에 의한것인지 또는 순전히 소련의 지시에 따른 꼭두각시 행동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西方의 집단조치」가 없는것으로 미뤄 일단「自由노조」와 현집권층간의 나름으로 보고있는 듯하다.

미국은 폴란드군부가 폴란드국민의 신뢰를받는 민족적 색채가 짙은것으로 좋게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퍼시상원외교분과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노조에대한 군부의 탄압을 과잉행동이라고비난하면서도 『자유노조가 내년15일까지 폴란드의 대소관계등 정치장래에 대해 국민투표실시를 주장한것은 군부가 참기어려운 문제였다』고 군부를 이해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폴란드군부가 외부세력의 명령이나 영향을 받지않으면 폴란드국민들의 존경을 받을수있을것』이라면서 군부의 자제를 촉구했다.

퍼시의 발언, 헤이그의 『군부와 자유노조가 타협하기를 바란다』는 코멘트, 한 고위 국무성관리의 『이번 군부행동은 소련 영향없는 독자적행동일 가능성이 짙다』는분석등은 미 행정부의 사태 관망이 자유노조와 군부의기갈등으로 보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소련이 폴란드에 공공연히 개입하거나 유혈사태가 확대되어가면 미국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유럽전역 핵군축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셉·시스코전 국무차관의 전망을 주시해 볼만하다.

"自由는 끝장이다" 한밤의 檢擧선풍

◇戒嚴선포후 바르샤바에 배치된 波軍人들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이 13일상오 계엄령을 선포한뒤 바르샤바중심부에 배치된 폴란드군인들。(이사진은 핀란드TV뉴스방송을 찍은것이다)【바르샤바14日UPI電送=聯合】

◇가장 먼저 기습당한 波勞組 바르샤바支部 폴란드自由勞組 바르샤바支部건물。폴란드경찰은 13일 이건물을 습격, 많은 노조간부들을 체포하고 관계서류들을 압수해갔다。【바르샤바14日UPI電送=聯合】

8시간의 奇襲드러머

토요일밤 수도 바르샤바 모코토프스카의 눈덮힌 거리、자유노조본부가 들어선 6층짜리 건물은 어둠속에서도 희뿌연 빛을 발했다。한겨울의 깊은밤 한교건물로 쓰였던 그건물의 주변은 주말의 안온함속에 과묻혀있었다。

12일 11시 (한국시간 13일상오7시) 갑자기 요란한 자동차 배기음이 모코토프스카거리의 정적을 깼다。11대의 트럭에 분승한 50여명의 무장경찰이 노조본부로 통하는 거리양끝에서 진입해 들어왔다。그들은 철모와 방패 전투복차림에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있었다。무장경찰은 촌각의 틈도없이 문을박차고 노조본부건물안으로 쳐들어갔다。잠시후 한뭉테기의 서류뭉치와함께 자유노조 바르샤바 지부장 크리스토프·슬리빈스키가 끌려나왔다。

전혀 예기치않던 한밤의 기습이었다。그것은 또한 폴란드민중의 대변인 자유노조가 철퇴를 맞는 「8시간 기습드라머」의 시작이었다。

기습드라머는 계엄선포 8시간전부터 용의주도하게 펼쳐지고 있었다。시민과 자유노조는 낌새를 채리지 못했다。다만 초저녁부터 공기가 심상치않음을 느꼈을 따름이다。

첫신호는 12일자 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드의보도였다。『자유노조 회의장에 공포의 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그날 밤 10시 그다니스크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있던 자유노조는 「17일의 총파업」을 결정했었다。

무장경찰의 바르샤바본부기습과 때를같이하여 국내전화는물론 국제전화와 텔렉스 교신이 갑자기 끊겼다。해외특파원사무실의 통신망도 두절돼 기습에관한 즉각적인 송고가 불가능했다。이같은 통신두절작전은 거의 완벽했다。가장 늦게 끊긴것은 바르샤바 주재 미국대사관이었다。미대사관과 본국과의 통신은 현지시간 13일새벽 6시에 끊겼다。

바웬사를 필두로 전국의 자유노조지도자들이 몰려있는곳은 그다니스크、이곳의 기습은 조금 늦어진 13일 새벽1시였다。노조의 심야 회의장과 숙소인 각호텔은 무장경찰에의해 삼엄히 포위됐다。일부대표들은、현장에서 체포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묵고있는 그다니스크의 노보텔、헤벨리우츠、모노폴、그리고 소프트지역의 그랜드호텔서 깡그리 체포됐다。

북부 실레지아 대표들은 포위망을 뚫고 숙소를 빠져나와 철도역으로 달려갔다。그러나 그들이 도중에 체포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습과 체포가 진행되면서 바르샤바、그다니스크등 폴란드 전역에는 중무장한 군대와 경찰이 패트롤을 쉬지 않았다。

계엄선포 하루전인 12일 초저녁 지방노조는 이미심상치않은분위기를노조본부에 보고했다。고속도로상의 탱크대열、각지역에서 군과 경찰병력의 이동이보고됐음에도 노조지도자들은 즉각 정부의기습작전이 있으리라고는믿지않았다。

13일 새벽6시、밤새 재즈음악만을 틀어대던 국영 바르샤바방송은 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의 연설을 특별방송했다。폴란드의 「戰時狀態」돌입을 선언하는 것이었다。토요일밤과 일요일 새벽8시간에 걸친 기습드라머의전말이 화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로마居任 폴란드人들의 抗議시위 로마거주 폴란드인들이 『폴란드에 평화와 자유를』이라고쓴 전단을든채 로마주재 폴란드대사관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있다。【로마 14日AP電送=聯合】

蘇의 表情

모스크바의외교소식통들은 폴란드의 계엄령선포를 야루젤스키수상의 「마지막기회」라고 표현한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비상조치로도 정부와 노조대결의 극한상황을 해결하지못한다면 소련의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어 소련의 군사개입가능성이 현실화할것으로보고있다.

소련은 폴란드내의 노조사태가 가열되자 68년 체코침공때 내세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련으로서는 동구권에서는 소련형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고 소련과 동구권에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방위체제를 유지하는일이 급선무다. 폴란드사태가 악화되면 이두가지 기본적인 목표의 근간이 흔들리기때문에 부득이 자구책을 발동하지않을수 없게된다.

그동안 소련은 폴란드의 사태발전으로 폴란드체제 붕괴의위기감과동구권화산가능성을 느끼면서도 복합적인내외여건때문에 자체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직접 개입」을 자제해왔다.

소련으로서는 무정부상태와 내란의 위험으로 치달아온 저간의 폴란드 사태는 인내력의 한계를 의미하는것이었다. 폴란드가 이번에 취한 비상조치로도 사태를 해결하지못한다면 소련의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된다.

소련은 우선 계엄령이후의 폴란드사태를 지켜본뒤 혼란을 수습하지못한다면 소련군이나바르샤바조약군을동원하여 군사적 개입에 나설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폴란드사태 직접 개입은 외교·군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소련의 개입은 아프가니스탄 침공후 악화된 동서간의 긴장을 부채질해 레이건美행정부의 군비증강정책에 새로운 구실을 제공하게된다. 따라서 어렵게 성사된 제네바의 유럽중거리미사일 제한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미국으로 하여금 친소국가인 쿠바나 리비아등에 모종의 강경조치를 취할수있는 구실을 줄수도있다.

이밖에 소련의 서유럽국가와의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실제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다해도 90%이상이 가톨릭이며 반소감정이 뿌리깊은 폴란드국민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고있다.

소련은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지도하에 활동해야한다』는 원칙이 유지된다면 부분적인 개혁이있더라도 폴란드 자체내의 수습이 최선의 방법인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고대하고있다.【申相碩기자】

蘇에 폴란드介入말라警告

레이건 國家安保會議소집

【워싱턴13日AP·UPI=聯】로널드·레이건美 대통령은 13일 소련에 대해 폴란드문제에 개입하지 말도록 거듭 경고했다.

蘇, 즉각報道

【모스크바13日聯·UPI=聯】소련은 13일 폴란드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구국군사평의회를 설치한 사실을 즉각 보도하고 폴란드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전복을 노리는 자유노조지도자들의 극단적 행동이 가져온 「무정부상태」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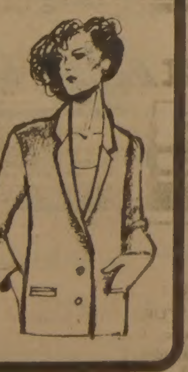
波의武力統治대응 나토特別會議소집

【브뤼셀14日聯=聯】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는 계엄령이 선포된 폴란드사태와 관련, 14일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폴란드의 무력통치체제에대한 나토의 대응책을 강구한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리
☎: 533—2361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정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8-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현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961—3111

「怨恨사건」 잡고보니 怨恨없었다

금복주社長 3人조 협박범 서울·大邱·仁川서 검거

事業자금위해 작년12월 모의
私製권총 2정·폭발물등 제조

大邱금복주사장 金泓穰씨(55)집 폭파 협박범일당 3명이 검거됐다. 수사본부(본부장 金鳳玄 大邱中部서장)는 사건발생 65일만인 14일 주범 黃載沐씨(34·전浦項제철 배관공·大邱市 中區 鳳山洞3街170), 자금책 金원수씨(34·전한일장식대표·大邱市 南區 大明洞), 행동책 金日出씨(37·무직·大邱市 南區 梨泉2洞320의2) 등 3명을 진범으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이들로부터 「선파워」 건전지, 사제시한폭발물 제조기구, 전자 사제권총2정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복주 金사장과는 원한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사업자금을 마련키위한 범행이었음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爆藥원료사간 30代 추적끝에 검거
"협박편지 1차례만 했다"

◇고개떨군 범인 금복주사장집 폭파협박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金日出。【大邱14日韓=聯合】

大邱 모고교 동창관계인 범인들은 경찰에서 각자 사업에 실패하자 지난해 크리스머스때부터 범행을 모의해 왔는데 범행대상으로는 大邱발 서울행 한은현금수송차, 경북대교직원봉급, 大邱코카콜라 사무실등을 꼽아두고 사전답사까지 했다가 여의치 않자 돈많은 金사장을 대상으로 삼았을뿐 금복주나 金사장 개인과는 아무원한이 없다고 말했다는것이다.

경찰은 이들중 黃은 仁川에서, 金원수씨는 서울에서 각각 검거, 大邱로 압송중인데 이들이 합류되면 범죄전모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이들은또 金씨집에 단한번만 협박편지를보냈다고주장, 경찰은 나머지 7차례의협박편지를 보낸 범인들이 이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계속 수사키로했다.

검거 경찰은 현장 유류품인 화약이 TNT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大邱시내 50여개 화공약품상을 추적, 사건발생 10여일전 30대남자가 大邱市中區西門路 모화공약품 상회에서 폭약성분의 화공약품인 니트로크롬을 사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30대 남자를 추적한 끝에 黃의 신원을 알아내고 주변인물을 조사한 끝에 黃과 金일출 金원수등 3명이 자주 어울리고 있음을 밝혀내고 13일 하오 3시께 먼저 金일출을 大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날 주범 黃을 仁川시내 동백여인숙에서 검거한데 이어 14일 새벽 金원수도 서울시내 모아파트에서 체포했다.

동기 大邱모고교동창인 이들은 각자사업에 실패한뒤 지난해말부터 범행을 모의, 黃이 권총과 사제폭발물제조를 맡고 金원수가 자금을, 그리고 金日出이 직접범행을 맡기로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현금호송차량을 탈취할계획을 세웠을때는 추풍령휴게소에서 차량을 탈취 도주하다가 폭파, 추격을 뿌리친다는계획을 세우고 현지답사까지했으나 여의치않자 포기했다.

범행 범인들은 지난 10월10일밤15분께 大邱市中區三德洞2街29의5 金泓穰사장(55)집에 협박전화를걸고 폭발물을던졌다.

이사고로 金씨집 경비원 金종규씨가 오른쪽손에 상처를입었으며 金씨집 목재대문이 가로10㎝ 세로80㎝가량이 파손됐다. 범인들은 또 폭파사건발생 11일이지난뒤 협박편지를 金사장집에보내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사건이 김씨와사업관계로 원한이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일단 추정, 金사장 주변인물 비롯 회사를그만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펴왔으나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못하자 뒤늦게나마 단순 공갈배의소행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이때문에 金사장은물론 금복주의 전·현직사원, 화원동 산관계자와 인근주민등 많은 사람들이 수사대상에올라 조사를 받기도 했다.

3명 모두 가난한 생활
配管工 黃은 폭발물 기술자

범인주변 범인3명은모두 사업과 직장생활에 실패, 생활고를 겪던중 우연히만나 범행을 모의한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책인 金원수와 폭발물 기술책인 黃載沐은 대구K고교 동기생이고 金日出은 D상고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아는사이였는데 지난해연말 직장을 그만두고 놀면서 급격히 가까와졌다.

실내장식업을 하던 金원수는 지난해 건축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았으며, 도배와 풀공장을 경영하던 金日出도 불경기로도산, 포항제철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실직한 黃과 한탕을 하기로했다.

黃은 군복무당시 병기를 다룬 경력이있어 폭발물을 만드는데 비상한 기술을 갖고있으며 이번사건에 사용한 폭발물과 준비해둔 사제권총2정도 모두 직접제조한것으로 밝혀졌다.

大邱市南區梨泉2洞420의3에 7만원의 단칸 사글세방을얻어 부인과 1남2녀를 거느리고 살고있는 金日出은 그동안 수입이 한푼도 없어 방세가 이달말로 끝나기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독촉을받고 있었다.

黃은 大邱市 中區鳳山洞170 한옥자택에 부인과 딸이 있는데 범행후 서울로 올라가 전전하다가 1개월전쯤 인천 모제철공장에 배관공으로 취직했다는것.

이밖에 金원수는 주민등록과 호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서울 반포아파트에 자주다닌점으로 보아 가족 또는 동거여인이 그곳에 있는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압수된 폭파장치 경찰에 압수된 사제권총(왼쪽)과 사제 폭탄제조재료및 금복주 金사장집 뒤뜰에서 터진 폭발물의 파편들(오른쪽)。

"韓銀 現送차량 털려고했다"
추풍령고개 터널爆破등 문제많아 포기

"괴롭고 죄송할 따름이다"
범인金日出과의 1問1答

—범행동기는.

▲공범 黃과 金이 지난해 크리스머스때 사업에 실패하고『한탕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후 범행대상을 물색해 오다 金사장을 대상으로삼게 되었다.

—金사장집에 폭발물을 던지던날밤 3명이 어떻게행동했나.

▲黃이 사제폭탄하나를 金사장집 대문에던지고 金이뒤뜰에 던졌다. 나는 30m쯤떨어진 인근구멍가게에서 金사장집에 전화를했다.

—金사장집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원한이 없다. 다만지난 1월부터 3명이범행대상을 물색하던중 서울로다니는한국은행 현금수송차량을 털기로하고 운전사가 추풍령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을알고 운전사가 차를 비운사이에 운전을 할줄아는 金이 차를빼내 서울쪽으로 달리다가 추풍령의 올라가는 방향의 1차터널에 폭약장치를해서 우리차가 지나간즉시 폭약을 터뜨려 터널을 폭파, 현금을 탈취하는 구체적 방법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현장답사결과 현금을 탈취하여 수송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포기했으며 지난 9월까지 경북대 교직원 봉급탈취, 코카콜라사무실 강탈등을 계획하다가 마지막으로 金사장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현재심정은.

▲괴롭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까지 모두 8회의협박편지를 모두 당신들이 보냈나.

▲우리는 月背우체국에서 한차례(원한에 서린 칼날운운한 첫번째 협박편지를 말함)만 보냈을 뿐이다. 다른 협박편지는 우리와무관하다.

오해풀려 기쁘다
금복주 金사장 안도의숨

金泓穰 금복주사장은 14일 범인검거소식에『이제 안심하고 잠을 잘수있게 됐으며 주위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날수있게되어 기쁘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날하오 수사본부가 설치된 中部경찰서를 방문한 金씨는『마치 내가 종업원을 못살게 굴고 많은원한을 산것같은 인상을받아 가슴아팠다』면서『금품을 노린 단순 협박사건임이 밝혀져 오해를 씻게된것이 더욱 후련하다』고 말했다.

殊勳경찰 2명特進

【大邱=聯合】 대구 시경은 14일 금복주사장집폭발사건 해결에 공이 큰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소속 오문승순경(42)과 김수암순경(37)등 2명을 1계급씩 특진시키로했다.

이들은 폭약등 증거물출처 수사를 전담, 시중 50여개의 화공약품상을 샅샅이 뒤지던중 사건발생 10일전 30대남자가 폭약성분인 니트로크롬을 사간사실을 밝혀내고 추적 범인들을 붙잡게됐다.

6·25동란 戰死 美軍유골을 발견
燕岐개미고개서

【天安=聯合】 6·25때 전사한 것으로보이는 美軍유골과 철모·M1소총총열·군번인식표등이 충남燕岐郡全東面靑藍里 개미고개 뒷산에서 발견돼 池甲鍾한국참전협회장과 美8군시체처리장 에드린·A·홀스맨등 3명이 13일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유골과함께 발견된 인식표에는 美24사단21연대3대대상사「존·R·멕인미스」라고 새겨져있어 멕인미스상사가 6·25동란때 전사한것으로보인다.

2m50cm 超大型 산갈치
낚시하던 漁夫가 붙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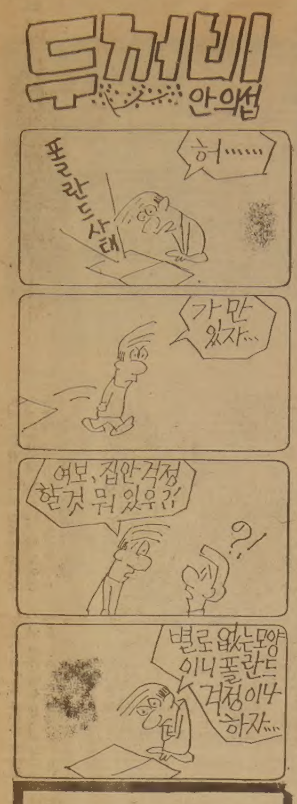
표주박

○…한달동안 보름은 산에서 나머지 보름은 바다에서 산다는 신비의 물고기인 초대형 산갈치가 잡혔다.

지난 12일 慶南三千浦시 수협위판장에서는 길이 2m50cm 몸통너비 30cm, 무게29kg인 은빛의 산갈치가 위판대에올라 눈길을 끌었다. (사진)

○…이 산갈치는 이날 새벽5시께 어부 朴完濟씨(47·固城郡下一面 春岩2구73)가 固城郡 진매섬앞바다에서 낙지잡이를 하다 삿대로 때려잡은것. 한국동물요람에 따르면 물고기는 산과 바다에서 보름씩 지내고 날아다닐수 있는 날개와 물없이 공기만으로 생명을 유지할수있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병통치약으로 특히 나병에 특효가있어 비싼값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산갈치는 이날 黃成姬씨(37·三千浦市仙鶴洞154의7)가 30만원에 매입, 모교인 梨花女大 박물관에 기증키로했다.



"大學졸업定員制 변경안해"
문교부 脫落率등 신축성있게 보완

문교부는 14일 民正黨이 대학졸업정원제의 단계적인 철폐를 주장한데 대해『정부로서는 졸업정원제의 근간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며 다만 학년별 탈락률의 조정등 세부문제를 대학의 자율규제에 맡겨 이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교부의 鄭然春대변인은 이날『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을 오는 연말께 열릴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시달할 예정이며 民正黨의 건의는 아직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名節떡값만 받았다
前동자부 석탄국장 低質炭사건 첫公判

저질연탄 폭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동자부 석탄국장 尹錫九피고인(47)에 대한 첫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尹피고인은 79년이후 대한석탄협회와 연탄업자들로부터 석탄및 연탄값 인상을 둘러싸고 모두 1천9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지난 10월12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날 공판에서 尹피고인은 간여 서울지검 특수부 朴桂官검사의 직접신문에 대해『명절때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연탄값인상을 둘러싸고 청탁이나 사례비조로 받은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만을 시인했다.

高여인 犯行자백 녹음내용을 검증
尹甲富 피살사건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피살사건을 심리하고있는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는 14일 상오10시 형사대법정에서 高淑鍾피고인(46)이 이사건과관련, 경찰에 구속된직후인 지난8월21일 서울지검 金基眼부장검사와 申熙求검사앞에서 범행을 자백한 녹음내용을 검증했다.

아기1명 또숨져
피얼즈 嬰兒院

【大田=聯合】 홍역에 걸려 大田 을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던 피얼즈영아원 어린이10명중 생후8개월된 崔玉蘭아기가 13일 밤10시10분께 또 숨져 이번 홍역으로 숨진어린이의수는 13명으로 늘어났다.

崔玉蘭아기는 지난8일 홍역에 걸려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겹쳐 숨졌다.

현재 피얼즈영아원어린이들은 忠南大의대 부속병원에 6명, 大田을지병원에 9명등 모두 15명이 홍역과 홍역에의한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고추收買값 조작
4천여만원 橫領

【大邱=聯合】 경북도경은 14일 경북영양군 석보면 농협단위조합 전조합장 박태순씨(48) 전참사 김광석씨(33) 서기 이홍식씨(31)등 3명을 업무상횡령및 배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12월1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상인들로부터 마른고추 18만1천4백근을 근당 1천5백55~2천87원씩에 사들여 근당 1천9백원씩에 구입한것처럼 조작, 차액 7백66만원을 가로챘으며 같은달 31일 마른고추 1천5백88근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대금3백63만원을 빼내 조합차량교통사고수습비로 지급했다는것.

이들은 또 지난2월22일 농어촌개발공사에 납품키로했던 마른고추 6만7천5백근이 반품되자 이가운데 1만6천8백근을 3천4백66만원에 팔아 착복하는등 모두 4천5백95만원을 착복했다는것.

前方부대 將兵위문
南국무총리

南悳祐국무총리는 14일 중부전선 전방지역을 시찰하고 ○○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南총리의 전방시찰과 위문에는 周永福국방장관과 金永均법제처장, 趙英吉총리비서실장등이 수행했다.

手術 女兒분만 産母
20시간放置 숨져
醫師행방불명「昏睡」손못써

水原

【水原=聯合】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한후 20시간이넘도록 산모를방치, 산모가 숨졌다.

양재열씨(25·水原市北水洞78)는 부인 김명희(24)씨를 지난 12일상오7시40분 水原市八達路소재 박찬태 산부인과에 입원시켜 이날하오9시40분께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여아를 분만, 입원실로 옮겼으나 산모가 좀처럼 마취에서 깨어나지않아 의사를 찾았지만 출타하고 없었으며 다음날인 13일새벽4시 김여인이 숨진 2시간뒤인 6시15분께야 의사朴씨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산모가 혼수상태에 있어 10여차례나 의사를 찾았으나 간호원만나타나 손을 쓸수없었고 간호원들이 의사 서울집(서울江南區瑞草洞 우성아파트13동305호)에도 연락해주지않아 산모를 죽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장 박씨는『수술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것도 보지않고 병원을 오래비운것은 잘못되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여인의 사인규명을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사인을 밝히기로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한국 비데오 테프 판매센터
광고도안
결혼·회갑 촬영 300종
善美 선미광고 B531·6430 R746·3712 구본무

한국일보

유일한 한국인의 털도매상
털공장에서 직접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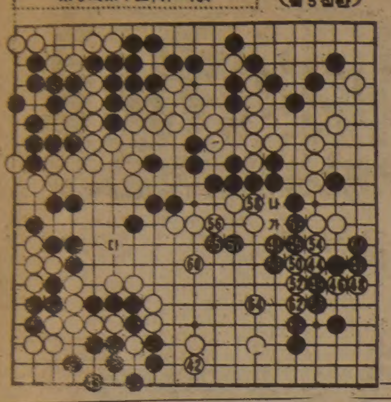
CMC 카나다 밍크센타 모피

각종 모피 도매와 각종 털 가공품을 도매하고 있는 카나다밍크센터에서는 각종 털제품을 고포들께서 직접 털공장에서 마음껏 선택하시며 도매값으로 구입하시도록 매주 금,토 양일에 공개전시및 판매하오니 많은 구경과 애용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나 타주에서 털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의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아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품목: 남녀노소 각종 털옷, 각종 털모자,
각종 털목도리, 각종털칼라, 각종 스톨,
각종 케이프, 각종 자켙트, 각종 모피
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장소: 캐나다 밍크센타
1422 - 1424 QUEEN ST. W. 3층
전화: 535-7878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7譜141~164 (갈5집잡)



전문가는 적을 신나게 몰아칠 적에도 결코 기분에 치우쳐 과격한 수를 두려하지 않는다. 흑암 黑대마를 쫓고 또쫓던 黑4단이 黑41을 보더니 갑자기 하변을 白42로 내려서서 黑43을 몰아시킨 태도가 바로 그런식이 아니가 싶어보였다. 물론 白42는 절대선수이다. 그러나 마치 초읽기에 몰려서 시간연장을 피하는것 같기도 해서 약간 이상했는데 실은 白44를 놓는다고 잠깐 숨을 돌린 때문이었던 것이다.

白、全面공격 開始

여 54까지 필연이라는 이름의 외길이다. 여기서 눈여퍼는것은 ◭표와 47이 마치 전단을 잡힌꼴이다. 물론 黑의 고전은 여전하다. 더군다나 白「나」면 끊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黑55, 57이 빼저린 보강이다. 그리고 白58에는 黑59로 우선 아래쪽으로 연결하며 터져나갔다. 이어고 白60。이경우 黑은 예써 밭출시킨 黑대마의 안정을 위하여 61로 「다」에 가일수하면 무사했다. 하지만 대신 61의곳을 白에게 당한다면 그것으로 집부족。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黑61은 승부수。이대놓고 대마의 死活에 희망을 걸어본것이다. 따라서 白도 62、64로 아낌내 대마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 자 — 어마어마한 공방전은 막바지로 치닫기 시작한다. 【一民】

女子의 마음

「처녀시절」잃은 아쉬움

어느날 결혼을 앞둔 친구집에 놀러갔었다。그는 마당구석에서 무언가를 태우며 우울한 얼굴이었다。내가 다가가자 친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응、이런것이 인생의 1단계인 「꿈은 사라지고」인가봐』라고말 했다。

자세히보니 서랍째로 빼다놓고 태우는 옛날의모든 「정신적 이력서」들이었다。얼굴도 모르면서 꿈과 희망과 서로의인생을 논하던 펜팔과의 편지들, 첫사랑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연들, 예쁜카드、사진、일기장…。10여년동안 손에서 손에서 닳고닳아오른정든것들이 한순간에재로되어버린다。실상 그곳에 「숨겨야 할 과거」라곤 없건만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젊은날의설렘까지도 불태워 버려야 하는걸까。

모든것을 태워버린 친구를 끌고 다방으로가서 함께 차를 마셨다。오늘따라 때늦은 가을비마저 내린다。얼마 안있으면 시집가는 친구를 잃는듯한 아쉬움과함께 나자신도 차츰 아름다운 처녀시절을 덧없이 잃고 있다는 아쉬움에 목이 메는듯 했다。【안혜경·전북정읍군입암면신정리】

한국일보 533-2361

나에 이력서

〈醫學 元一漢〉 元一漢 ⑯

선교사와 傳染病퇴치

疾病에대해 無知…계몽全力

선교사들은 의료선교를 하는동안 한국에…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특별히…많은것을 앓았다。원인은 대부분 청결부족、빈약한 음식물섭취 그리고 한방에서 여러사람이 기거하는 생활방식과관계가있었다。

특히 천연두에 걸린사람이 많았다。그 까닭은 그 병에대한 인식을 잘못하고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사람들은 천연두는 중국의귀신이 가끔씩 음식을 바꾸어 먹으려고 찾아오는 병이라고 믿었다。그래서 이 귀신에게 대단한 존경을 표시「손님」또는「귀한손님」이라고까지 불렀다。

또 콜레라를 쥐귀신이 몸안으로 들어오면 발생한는것으로생각했다。심지어 콜레라라는 병이 쥐의 형상을 하고있어 쥐의 발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와 내장에 침입한다고 믿었다。

다리근육의 경련도 쥐귀신에의해 일어난다고 여겨 서울거리에서 집대문에다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쥐귀신이 天敵인 고양이가 무서워 덤비지 못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집주위에 새끼줄을 쳐놓고 콜레라 귀신이 이 구역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적을 걸기도했다。

선교사들은 회합을 열고 콜레라균은 더러운 음식을 통해 전염되며 오염된 음식물도 끓이면 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열중했다。

『콜레라는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그것은 병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벌레에 의한 것이다。이 작은 벌레가 위속에 들어가면 급속히 번식하여 질병이 유발된다。조심하면 콜레라는 걸리지 않을수 있다。당신이 할일은 음식물을 완전히 익혀서 병균을 죽이고 그것이 다시오염되기전에 먹는것이다。막 끓여낸 숭늉을 마셔야한다。마실물은 끓여서 깨끗한 병에 보관하라。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균과 접촉하게 되니까 손과 입을 철저히 씻어야 하며 …을 주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남대문밖 복숭아골에있던 우리집 정원에 모였던 어느날의 선교사가족들。전염병 퇴치에 앞장서면서도 전염병공포만은 떨쳐버릴수·없었다。

汚染음식물은 끓이면 殺菌된다 알려주고

이상은 선교사들이 전도지와함께 들고 다니며 나눠준 내용이다。

할머니(릴리아스·호톤·언더우드)가 쓴「상투쟁이와 더불어 15년」에 많은 채소를 팔고있는 노점에서 멜론 포도들이 먹어서는 안될 풋과일을 아주 맛있게 먹고있더라는 부분이 있다。

또 선교사들이 전염병발생지역에 직접 뛰어들어 환자수용 바라크를 짓고 응급환자를 돌봤다고 써있다。

이 바라크안은 습기가 많았다。시설도 형편없었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따뜻하게 해줄 도구도 없었다。선교사들은 오직 단시일내에사용할수있는 필수도구만 들고 달려가곤했다고 전한다。

『가끔 약이라는 것이 투여되지만 이는 죽음을 연장시켜줄 뿐이지 그이상할소용이 없는것처럼 보이는것이 가슴아프고 무서운일이었다。병이 신경중추와 전내장까지번져환자들은 힘없이죽어갔다。혹은 심한증세가없어진후 환자가 회원할때쯤 돼도 폐렴 요독성경련 또는다른후유증으로 죽어갔다』

그당시 실정을 이렇게 묘사한 할머니는 한국사람들이 석회가 병을 예방하는 신비스런 약인줄 알고 더러운 하수구에 뿌리거나 콜레라를 물아내는 부적으로 현관문에 석회칠을한 바가지를 내걸어놓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선교사들과 의사、간호원들은 태극기위에 적십자마크를 넣은 배지를 달고 다녔다。이때문에 기독교주의 아닌 한국에서도 십자가표시는 어느곳에서나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

流星의 賊 〈26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㉘

1590년 7월10일 밤。

홍계남이 가나이사범(金井師範)을 찾아갔다。

『하까다에서 머무는동안 분외의 지우(知遇)를 받자와 고마왔습니다。비록 나라는 달리할지라도 인정은 한가지。스승으로서의 은혜 잊지않겠소이다。내일 경도로 발정함에 있어 한마디 인사말을 여쭙고자 왔소이다』

계남의 인사를 받자 가나이는

『내일 발정이옵니까。소임을 맡아 오신 신분으로 당연히 떠나셔야 하겠지만 그 간의 정의를 생각하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구료』

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계남은 준비해 온 합죽선(合竹扇) 하나를 꺼내놓고 말했다。

『갖가지의 은혜에 대한 하찮은 정표(情表)이옵니다。망망여정(忙忙旅程)에 가진것이 없어서 초라한 이것 내 놓기가 부끄럽사오나 소납하소서』

『은혜가 또 뭡니까。나는 내가 귀하에게 가르친 것 이상의 것을 귀하로부터 배웠소。나는 앞으로 배운 검법(白雲劍法)을 익혀 볼 참입니다。무궁한 검리(劍理)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게다가 이 귀한 물건까지 주시니 정말 황공하오이다』

하고 가나이는 지필을 꺼내 편지를 썼다。그리고 그것을 봉하여 계남에게 밀어 놓으며 말했다。

『경도에 가시거든 부디 요시오까도잠(吉岡道潛)이란데로 찾아 가십시오。경도는 일본의 중심지인만큼 이름 높은 검객들이 모여들기도 하는 곳인데 특히 요시오까도잠은 그 명성이 자못 높은 곳입니다。거기 가셔서 구경하시면 검술의 갖가지 오묘한 이치를 더욱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요시오까도잠의 지금의 당주(當主)는 내 친구의 아들이라 편지속에 누누 적었으니 기필 후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더니 가나이는 벽장 속에서 칼 한 자루를 꺼내 놓았다。

『이건 히젠슈오오(肥前守吳)라고 해서 비젠지방에서 이름이 나 있는 명도(銘刀)이옵니다。마사무네(正宗)처럼 떠들썩한 명판은 없습니다만 실지에 있어선 마사무네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칼입니다。귀하가 가지신 잠매수도를 보완(補完)하는 뜻도 있게 될것이니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계남은 그 너무한 호의에 감격했다。합죽선 한개와 이름난 명도와 맞바꾼셈이니 당연한 감격이었다。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가나이는 계남을 잠깐 만류하여 주효의 대접을 했다。그 자리에서 가나이가 한말은

『지금 수길(秀吉)이 천하인(天下人)이 되어 기고만장의 상태에 있습니다。그 뜻 장(壯)하다고 하면 장하고 광(狂)이라고 하면 광(狂)입니다。바라건대 그의 야심이 귀국의 화로 되지않았으면 합니다。그런 까닭에 지나치게 유순할 필요도 없으나 수길의 광을 자극하지 말도록 통신사께선 각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상지도(上之道)는 화(和)요、하지하도(下之下道)가 전(戰)이고 쟁(爭)인바 부디 화로써 만사를 이루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고맙다』고 할뿐 당하군관(堂下軍官) 홍계남으로선 그 이상의 말이 있을수 없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당신은 안했어, 안했다구, 안했단말이야" "저도 했어요, 했대두요"

"바보같은 입씨름은 이제 그만하고 키스하고 끝내지요"

"쪽"

"그렇지만…저도 했단말예요"

流星의 賊 〈26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㉗

7월11일、예정대로 통신사 일행은 하까다를 출발해 이틀 후의 저녁나절 적문관(赤門官)에 도착했다。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그빛이 비스듬이 비끼자 산광수색(山光水色)은 기관(奇觀)을 이루었다。

적문관의 만제(灣堤)는 견장했다。아름드리 나무를 수백、수천 수중에 깊이 팔고 그위에 판자를 덮었는데 가로 세로 각각 쉬어칸、그것이 엮더라 직결되어 있었다。그 판자를 밟고 객관(客館)에 이를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주민은 수천호、구경꾼의 복색은 화려하고 거리와 상점은 번화했다。이곳도 하까다와 마찬가지로 해문의 일도회(一都會)。그 영주는 모오리씨(毛利氏)라고 한는데 그 성은 여기서 1백60리 떨어진 하기(萩)에 있다고 했다。식록(食祿)은 50만석、이 모오리씨도 얼마 전 수길(秀吉)에게 신속(臣屬)했다고 한다。

통신사의 객관은 미타사(彌陀寺)였다。굉장한 규모의 대사찰이다。절 바로 옆에 「안덕천황묘(安德天皇廟)」라는 것이있다。안덕천황이란 지금으로부터 3백년 전의 일본 임금이다。계남은 그묘당이 왜 거기에 있는가를 연유를 물었다。

3백년 전 일본에선 원씨(源氏)와 평씨(平氏)의 정권 투쟁이 있었다。태정대신(太政大臣) 평청성(平淸盛)이 대비 백하후(大妃 白河后)와 짜고 정권을 농단했다。이에 대장군 원뢰조(大將軍 源賴朝)가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청성등은 패주했다。그 때 패주하는 무리 가운데 안덕천황을 업은 백하후(白河后)가 있었다。드디어 여기까지 와선 원군(源軍)의 압박을 받고 진퇴가 양난한 가운데 백하후는 천황을 업은채 바다에 뛰어 들었다。이 때 안덕제(安德帝)는 8세。나라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곳에 묘당(廟堂)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 평씨(平氏)는 멸망해 버렸습니까』

하고 계남이 일본인 통사에게 물었다。

『일시는 멸망했지요。그러나 그 뿌리가 없어진것은 아니지요。지금 득세하고 있는 수길은 스스로를 평씨(平氏)의 후예라고 하고 있소』

통사의 대답이었다。

『그럼 지금 원씨는 어떻게 되어 있소』

『어디엔가 숨어 있겠지요。요컨대 약 1백년을 끈 천하대란(天下大亂)은 따지고 보면 원평양씨(源平兩氏)의 각축전이었소。그 대란을 태합수길(太閤秀吉)이 수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습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아직 관동(關東)의 북조씨(北條氏)가 신복(臣服)하지 않았죠。태합은 지금 그 원정에 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일본은 아직 내란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오?』

『그러나 시간의 문제지요。북원 관동도 태합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남은 일본의 영웅을 모신 곳으로선 너무나 초라한 사당이 우거진 여름 풀 속에 홀로 서 있는 광경을 보고 예나 지금이나、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영고성쇠(榮枯盛衰)는 무상하다고 느꼈다。

일본인 통사의 말이 있었다。

『이곳의 영주 모오리씨의 근원이 원씨입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854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W. ☎: 967-7121

기타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래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제일식품■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단풍식품을 인수해서 **제일식품**이란 새 상호를 갖고 여러분께 봉사케 되었읍니다.
그간 해밀톤에 거주했던 관계로, 토론토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많이 없으나 오직 꾸준하게 성실히(1주일 내내 OPEN) 일할것을 교민께 약속드립니다.
김 덕 기 올림

★ 배달합니다.
★ 7 DAYS OPEN(오전10~오후10)
★ 새로 PARKING LOT마련

712 BLOOR ST.W.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532-1054
아리랑하우스 옆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 김)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783-0683
536-5914(밤9시이후)Mrs. 하

밤11시~오전7시(일~목요일)
도낫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 482-4088

● 도넛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 8시~오후4시(풀타임)
토,일 아침8시~오후4시(파트타임)
●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 : 531-2689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매매및 양도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고급코트를 만들수 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 수 있음.
☎ : 859-4366

이상적인 가족 비지네스(H·SALT 훠시 & 칩스, 휘트비)
그로스 : $2160/W 네트 : $930/W 아스킹 $60000
☎ : 683-7777(앤디·밴도라)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자동차 급매
75년 로얄·모나코 68,000마일 A-1콘디숀, 보증서 해줌.
☎ : 530-1491 $1295.00

제인 × 세파드
1000 sq. +완전히 FULL지하실
오후5시 전화요망
☎ : 449-0676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스토아 매니저나 후렌차이즈 구함(토론토지구)
☎ : 624-581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The Korea News
신문구독
광고문의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8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약 국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침,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웅

광고는 기업성공의 지름길 입니다.
문의처 ; 533-2361

여 행 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지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8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판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배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신장개업

— 교민에게 희소식, 곧 신장개업 —

하르빈 한약상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오랜 한의사 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께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되었읍니다.
각종 한약재, 침술등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일차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 춘 봉 올림

— 만주 하르빈 한의대학졸업(1958년도)
— 중국의과 대학 졸업(1954년도)
— 침술학을 20년 연구(하르빈)
— 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만주 하르빈 한의대학 교수역임(20년간)
— 5개국어 능통(중국어 · 일어 · 몽고어 · 소련어 · 한국어)

※한약재 : 인삼 · 녹용 · 사향 · 경명주사등

※오랜경험으로 침술(반신불구, 신경통등)

— 중공에서 직수입
— 정확한 진단과 처방

장소 :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 530—1868
R) 743—0752

한인사회 유일의
종합 운동구점
확장 이전 기념
30% UP TO 30% SALE
그동안 기위주시던 VARSITY 운동구점은 BARNDON SPORTS로 개명과 동시에
BLOOR에있는 연합교회 건너편 쪽으로 확장이전 하였읍니다.
SPADINA
BLOOR ST.
ST.GEORGE
N
E
W
S
337 BLOOR ST.WEST
BRANDON SPORTS
337 BLOOR ST.WEST TORONTO 598-3732
이 건 영